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은이 / 릭 존스 외 다수  
옮긴이 / 정 동 수, 박 노 찬

1판 1쇄 / 2009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며)  
2판 1쇄 / 2023년 3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664-1611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89-7508-017-X

정가 : 1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릭 존스(Rick Jones) 외 다수  
정동수, 박노찬 역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별다른 표시나 언급이 없는 한 모두 2021년도에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마제스티 에디션(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 <https://keepbible.com>)에서 인용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카톨릭교회에서 유아 세례(영세)를 받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첫 성찬과 견진 성사를 받았으며 매주 미사와 종교 교리반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저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훌륭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제 아내 샬리 역시 카톨릭 학교에서 공부했을 뿐 아니라 저처럼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카톨릭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종교 예식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카톨릭 교육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 카톨릭교회의 참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리들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카톨릭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이 우리 부부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은 카톨릭교회의 주요 교리들이 무엇이며 성경은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보다 잘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60년대 초 로마 카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 종교 통합을 위한 발판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테레사 수녀의 발언으로 잘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듯 구원의 길 역시 여럿이다.”

이 같은 사상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남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는 사월 초파일에 천주교회가 종을 치고 석가 탄생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에는 불교도들이 성탄 찬송을 불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일간지들도 천주교의 추기경이나 불교의 주지는 참으로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제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석가 탄신일을 축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자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신다면 부디 매주 일요일 일간지의 종교란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종교 통합 혹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진리를 저버리고 ‘사랑, 일치, 평화, 통합’ 등을 부르짖는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늑대에게 양을 넘겨주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역자는 지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며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1985년은 우리 가족의 삶을 크게 바꿔 놓은

해였습니다. 감리교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적 열심을 갖고 교회 일을 했지만 참으로 진리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에 매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벨기에에서 사역하시는 구영재 선교사님 — 후에는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 — 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매우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종교와 복음’에 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는데 그 순간 참으로 저는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천주교의 유래와 본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원이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사와 기독교회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미화되고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를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때에 정부와 타협을 한 자들만이 공공연하게 예배 처소를 짓고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하 교회에 머무르거나 순교를 당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100년 혹은 200년이 지난 다음 북한의 교회사를 저술하는 사람은 자연히 배도한 사람들의 자료만을 갖게 될 것이며 배도한 교회의 교회사를 공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에 근거한 교회사는 참된 교회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참된 교회사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천주교는 이 세상과 짝하며 세계의 정치 및 종교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진 천주교 교황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부터 크리스천들은 순교하는 삶을 택할지언정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단으로 내몰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의 교회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서 천주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는 주후 313년에 생겼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따른 천주교인이었던 말입니까?
- 천주교는 구교이고 기독교는 신교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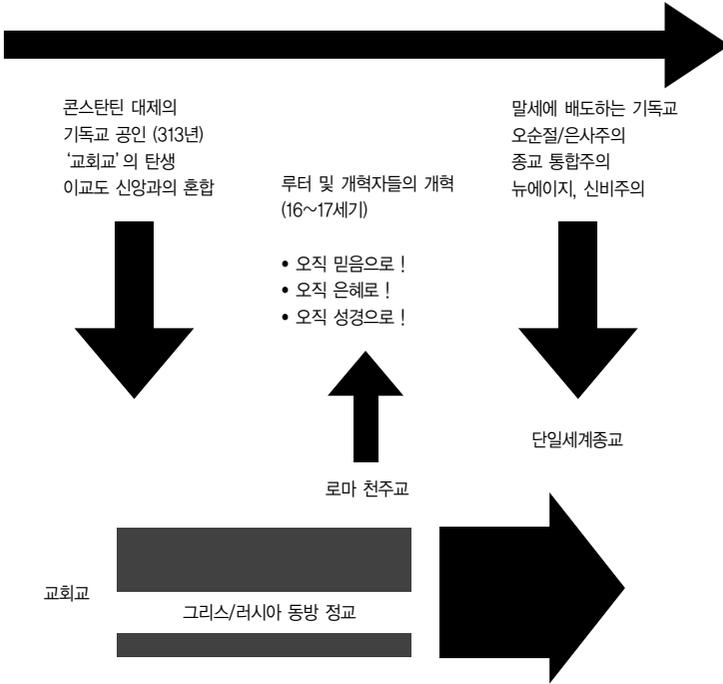
오직 한국에서만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결국 이 같은 구분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모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改新敎)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개신’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속임수로부터 용기 있게 뛰쳐

나와야 하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르든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가면 교회를 바꾸었다고 하지만 천주교에서 감리교 또는 장로교로 오면 '개종' (改宗)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종' 은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요람

**기독교 : 유대교에서 출발, 좁은 길, 피로 얼룩진 길, 생명의 길**



**기독교에서 갈라짐, 큰 길, 멸망의 길**

〈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 〉

이 결코 천주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부르신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교라는 사실입니다. 주후 30년경에 시작된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었고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죽였지만 계속해서 기독교가 흥왕하는 것을 보고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이런 목적하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고 이때 세상과 짝하고 정권과 결탁한 무리들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사상까지도 포용하여 천주교를 만든 후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나갔지 결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천주교는 복음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종교 재판 등을 통해 수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가 맞다고 주장한 침례교도들을 죽였으며, 미사에서 사제가 주는 빵 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16세기 초반에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좁은 길을 걸어온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새 교회사」(규장문화사제)와 「순례하는 교회」(전도출판사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 내사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유대교를 신봉하며 열심

을 내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회심시켜 온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하셨고, 천주교 사제로 지내던 루터를 회심시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의 교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 어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모두 연합하여 '뉴에이지 시대' 즉 '새 시대'의 도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거는 슬로건은 '평화와 일치'입니다. 이런 슬로건하에서 이들은 전 세계의 종교, 문화, 교육, 정치 등을 통합하여 인간들에 의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다시리게 될 뉴에이지 즉 새 시대가 '평화'의 이름으로 도래할 것과 그때의 징조로 기독교회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적그리스도]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단 8:25)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살후 2:3)

온 세상이 진리를 내버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이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

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994년에 미국의 타임지는 「카톨릭교회의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를 베스트셀러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인한 책으로 현재 로마 카톨릭교회가 믿는 바를 있는 그대로 모두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카톨릭교회 교리서」라는 제목으로 3권으로 나누어 출판했습니다(색인 등을 제외하고 총 981쪽이며 성바오로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음).

이 교리 문답서가 나오자 미국의 존스(Rick Jones)는 「로마 카톨릭주의를 이해하자」(*Understanding Roman Catholicism*)라는 책을 저술하여 천주교 교리 문답서와 성경이 기본적인 교리에서부터 상호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미국 Chick 출판사<sup>1)</sup>, 1995년).

역자들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이 천주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금번에 존스의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성경을 모르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에 충성하는 천주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주교 교리 문답서가 서로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보여 주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록으로 실은 글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천주교와 관련된 소책자 및 팸플릿 등을 번역한 것입니다. 글마다 그 출처를 밝혀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칙 출판사는 천주교의 진상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는 출판사로 각종 전도지, 서적, 테이프 등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영어를 하시는 분은 이 출판사의 홈페이지([www.chick.com](http://www.chick.com))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하기 바람.

본서를 대하는 독자들께서는 역자들을 천주교에 대한 편견과 무조건적인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께 역자들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 어떤 사람이 구원을 간구하며 상아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대답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 겨우 열여섯 살 난 소녀가 고해 성사 창구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에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유혹받은 것 등을 말해야만 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께 아뢰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 한 여인이 죽은 자기 남편이 연옥에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를 위해 미사를 드리며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고 연옥이란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 십역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과 세마포로 치장한 교황을 신뢰하며 천국의 열쇠를 받고자 하는 것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것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방 신비 종교를 믿는 철학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너무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역자들은 결코 천주교인을 미워하거나 실상을 잘 모른 채 종교 통합 운동 등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인본주의 종교 체제의 진상만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천주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개인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종교 통합주의를 주도하며 사람들을 마귀의 제물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악한 제도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향해 설교의 왕자요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스펀전 목사는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수 6:26)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교회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 선조 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거대한 벽이 믿음의 힘으로, 노력의 인내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옛 터전 위에 것처럼 저주받은 제도를 재건하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죄악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사려 깊게 그러나 담대하게 경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조 때에 로마 교회가 저지른 죄악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한다. 사제들이 올빼미처럼 햇빛을 싫어하므로 우리는 보다 철저히 온 땅에 빛을 전파해야만 한다.

로마 교회에 독과 해가 되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전한 복음 책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가? 한때 루터는 “마귀는 거위 깃털 펜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는 성령님의 복을

로 쓰여진 책들이 마귀의 왕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도 충분한 체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중흥무진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 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

본서에서 사용한 성경은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으로 알려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sup>2)</sup> 2021년 5월 출간)임을 밝힙니다. 이 성경을 택한 이유는 초대 교회부터 좁은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가 전해 준 '다수 사본'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틴데일, 루터, 칼빈, 웨슬리, 무디, 스피전 등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 혹은 '다수 사본'에서 번역한 성경만을 사용했으며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출간된 성경의 대다수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위력에 놀려 꼼짝 못하던 천주교는 드디어 성경 자체를 변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나온 역본들이 NIV, NASB, Living Bible 등이며 이러한 현대 역본들은 다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등의 카톨릭 '소수 사본'에 근거를 둔 카톨릭 성경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전해 준 성경을 버리고 카톨릭 성경인 현대 역본들을 취하게 되면서부터 카톨릭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상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자 추천 참고 도서 목록에 있는 성경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판매하고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성경 관련 자료 및 세계 정보 등 유익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www.KeepBible.com).

끝으로 2002년 8월에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다시 허락해 준 미국 칙 출판사의 존스 형제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복음의 빛으로 눈을 돌리게 해 주신 구영재 선교사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도서출판 말씀과만남 최현근 형제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등불을 밝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수의 형제자매들 위에 예수님의 화평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에서  
정동수, 박노찬

---

\*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다.

# 목 차

저자 서문 .....	5
역자 서문 .....	6
목차 .....	17
하나님의 말씀 .....	19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	20
누가 최종 권위입니까? .....	23

## ▪ 37가지 로마 카톨릭 교리

1. 교회를 통해서 얻는 구원 .....	33
2. 선행을 통해서 얻는 구원 .....	39
3. 교회가 죄를 용서함 .....	44
4. 단 하나의 참된 교회 .....	48
5. 세례를 통해서 얻는 구원 .....	54
6.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 .....	60
7. 오류가 없는 교황 .....	67
8. 성사를 통해서 얻는 구원 .....	72
9. 자만의 죄 .....	77
10. 유아 세례 .....	84
11. 죄의 경중 .....	89
12. 화체설 : 실체 변화 .....	94
13. 죄로부터 신자를 보호해 주는 성체 성사 .....	100
14. 죽은 자들에게도 유익한 성체 성사 .....	104
15. 마리아 : 또 다른 구원자 .....	108
16. 마리아 : 무염 시태 .....	114
17. 마리아 : 평생 동정녀 .....	120
18. 마리아 : 성덕의 근원 .....	124
19. 마리아 : 또 다른 중재자 .....	129
20. 마리아 : 기도의 응답자 .....	134
21. 마리아 : 천지의 여왕 .....	140
22. 미사 .....	145

23. 연옥 .....	150
24.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	155
25.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	160
26. 성상들 .....	165
27. 견진 성사 .....	171
28. 고해 성사 .....	176
29. 대사 : 면죄부 .....	182
30. 성경 해석 .....	187
31. 카톨릭의 기도 .....	191
32. 보속 .....	195
33. 천주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입니까? .....	200
34. 천주교인들이 다 틀릴 수 있을까요? .....	204
35. 화해 .....	208
36. 독신 생활 .....	212
37. 마지막 의례 : 노자 성사 .....	217
혼란 .....	221
초대장 .....	225
하나님의 청원 .....	230
자유인가 속박인가? .....	237
부록 1. 종교 개혁을 뒤엎은 사건 .....	243
부록 2. 빌리 그래함, 교황 그리고 성경 .....	253
부록 3. 성인들의 신화 : 프란시스와 어거스틴 .....	268
부록 4. 그리스도를 찾은 사제 .....	290
부록 5.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	295
부록 6. 역자 추천 참고 도서 .....	322

##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 Introduction

최근 들어 로마 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진영의 다수가 상대 진영을 자신들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 보지도, 상상해 보지도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 기독교 텔레비전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로마 카톨릭 프로그램을 내보냅니다.
- 기독교 서점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에 관해 호의적으로 쓰고 있는 다양한 책자의 자료들을 팔고 있습니다.

진정 양 진영이 하나로 통합되었나요? 이제는 그들 모두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나요? 이제 둘 다 완전히 일치하는 기본 교리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는 1994년에 출판된 「카톨릭교회의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저는 위에 언급한 책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이 문답서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리에 대한 공인된 원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이 로마 카톨릭교회가 실

제로 가르치고 있는 바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1994년에 출판된 이 책은 40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출판된 천주교 교리 문답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300년 전에 가르쳐진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로마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대하고 있음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37개에 달하는 주요한 로마 카톨릭 교리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저의 사적인 견해나 철학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단지 진정한 로마 카톨릭 교리들이 무엇이며 이 교리들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편견 없이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 교리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서게 될 그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그날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을 생각하면 저는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 7:23)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언하실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소개된 로마 카톨릭주의의 교리들을 공부해보시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 누가 최종 권위입니까?

Who is The Final Authority?

### 누가 최종 권위입니까?

구체적인 로마 카톨릭 교리들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누가 과연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대한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카톨릭주의가 세 개의 최종 권위가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도 성경은 오직 성경 하나만이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4년판 「카톨릭교회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聖傳)과 성서와 교회의 교도권은 하느님<sup>3)</sup>의 가장 현명하신 계획에 의하여 어느 하나가 없으면 바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한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아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상호 간에 연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 (계시헌장 10항)[제1편 p.45 #95]

이 구절에 따르면 성전(거룩한 전통)과 성서와 교회의 교도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모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82 참조).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교회의 전통과 교도권은 기록된 성경 말씀 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됩니다.

3) 천주교에서는 'God'을 '하느님' 즉 '하늘님'이라 번역했지만 기독교에서는 'God'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본서에서는 인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톨릭 문헌에서 '하느님'으로 표기된 것을 그대로 '하느님'으로 두었지만 '하나님'이 맞고 유물론적인 '하느님'은 틀림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성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전(聖傳)이란 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설교로 충실히 보존하고 설명하며 널리 전파하도록 한 것이다. [제1편 p.41 #81]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서로 다른 ‘최종 권위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전적 해석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계시헌장 10항), 즉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물 이르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제1편 p.42 #85]

교리 문답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책무는 교회에 맡겨져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교회가 오직 로마 카톨릭교회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리 문답서 전체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유일무이한 로마 카톨릭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서 주석자들의 임무는 이 같은 규칙을 따라 성서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설명하여 예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교회의 판단이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서 주석의 방법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판단에 속하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직무를 수행한다. (계시헌장 12항) [제1편 p.51 #119]

따라서 이 교리 문답서는 단 하나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카톨릭교회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그 이유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증(認證)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면 성경은 이에 동의할까요?

만일 성경, 전통, 카톨릭교회의 가르침 이 모두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가르침에 동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주의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시 119:160)

성경은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최종 권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 17:17)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록된 말씀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

시리라. (계 22:18-19)

사도 바울은 성경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으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롬 16:17-18)

사도 바울은 참 신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기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역행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든지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믿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8)

그런 뒤 그 말을 곧바로 반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9)

따라서 카톨릭교회의 교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모순이 될 때 성경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자들에 대해 엄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잠 30:5-6)

##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이 한 번 기록되었고 영원히 고정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시 119:89)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3-25)

##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대로 완전하므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시 19:7)

카톨릭주의는 오직 카톨릭교회의 지도자만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

느니라. (벧후 1:20-21)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교리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제들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성경으로부터인가요?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바울은 여기에서 교도권이나 교회의 전통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 구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딤후 3:15)

바울이 이 말씀들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카톨릭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카톨릭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버리셨습니까?**

이 성경 구절들과 기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위를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던 그 상태로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해야 할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비록 자신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황과 카톨릭교회에게 자신의 말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심으로써 이러한 성경의 금지 명령들을 모두 다 스스로 어기셨을까요?

### **바리새인들(종교적 위선자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공공연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막 7:7-8)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만 사람의 전통은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규정한 모든 관례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마 23:33)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들에게 응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 15:3)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전통보다 성경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마 22:29)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언제나 최종 권위로 존재해 왔지만 사람들의 전통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골 2:8)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최종 권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행 17:11)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해 들은 것들이 과연 진리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최종 권위, 곧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 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요 14:23-24)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살전 2:13)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것은 결코 카톨릭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카톨릭주의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말 3:6).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히 13:8). 왜냐하면 그분도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변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최종 권위인가를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입니까?

우리가 조사할 모든 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카톨릭주의의 가르침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전통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주의 사항 :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카톨릭교회의 전통이나 교도권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3:4)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 1

## 교회를 통해서 얻는 구원

Salvation Through The Church

로마 카톨릭주의에서는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카톨릭 교리 문답서가 말하는 교회는 항상 교황이 우두머리로 있는 카톨릭교회를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구원의 보편적 보조 수단인 그리스도의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층속에 도달할 수 있다.'(일치교령 3항)[제1편 p.316 #816]

여기에서 카톨릭 교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자료가 대답하고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카톨릭교회는 더 이상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리 문답서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의미이다. 공의회는 성서와 성전(聖傳)에 의거하여 나그네길에 있는 이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카톨릭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교회헌장 14항)[제1편 p.328 #846]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에 반복되는 진술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풍부한 '구원의 방법'(일치교령 3항)들이 위탁되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 (교회헌장 48항)된다. [제1편 p.320 #824]

교회 안에는 머리와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존속한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방법들’ (선교교령 6항)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제1편 p.323 #830]

이 주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결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교회 — 창조물인 사람들의 모임 — 를 통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상 수백 군데의 성경 구절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쾌히 주시는 선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3)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이나 혹은 어떤 단체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행 4:12)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으며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직접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반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복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 6:47)

이외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3장 18절, 3장 36절, 6장 40절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는 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을 베푸기 위해 결코 교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행 10:43)

성경에 의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즉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롬 3:24)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엡 1:7)

다시 한 번 우리는 구원의 필요충분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롬 1:16)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살전 5:9)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구원이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보여 주셨습니다. 결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눅 23:42)

그 죽어 가는 죄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창조물의 모임인 교회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 3:17)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롬 5:9)

만일 구원이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고의적으로 속이셨다는 말입니까? 카톨릭교회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성경기록에서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행 15:11)

비록 카톨릭주의가 구원은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믿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둘 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요일 4:9)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그분께 그 이유를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막 7:8)

## 2 선행을 통해서 얻는 구원

Salvation Through Good Works

카톨릭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못하여 교회의 품 안에 '몸'으로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는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 (교회헌장 14항)[제1편 p.325 #837]

그들은 또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비롯해서(#1257 참조) 온갖 성사(聖事)들과(#1129 참조)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는 구원이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으로써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활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딤후 3:5)

참으로 성경은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무도 선한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롬 3:28)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8)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갈 3:26)

## 바리새인들과 선행

매우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선행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며 (막 7:5)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호되게 꾸중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아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꾸짖으시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오.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7:13)

사실 이것이야말로 카톨릭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저지르는 잘못이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굳게 믿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행위가 결단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갈 2:16)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롬 5:1)

## 선한 행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행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즉 정신이 바짝 날 성경기록을 잘 보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1-22)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영원히 실망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 7:23)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선행이 결코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려 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행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21)

다시 말해서,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선행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갈 3:26)

성경은 반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 3:18)

예수님도 친히 이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  
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  
라. (요 6:40)

## 결 론

선행을 통해서 얻는 구원

로마 카톨릭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얻는 구원과 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믿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카톨릭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다면 이제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 3

## 교회가 죄를 용서함

The Church Forgives Sins

카톨릭주의는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 교리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카톨릭주의가 교회를 언급할 때에는 예외 없이 로마 카톨릭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대한 잘못이라 해도 거룩한 교회가 사해 줄 수 없는 잘못은 없다.  
[제1편 p.372 #9821]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1편 p.373 #986]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교회는…  
[제2편 pp.530-531 #1448]

카톨릭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 (막 2:7)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엡 4:32)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신에게 직접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코 교회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히 4:16)

이 구절은 죄들의 용서가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온다고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는 정반대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교와 사제들은 신품 성사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제2편 p.535 #1461]

교회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지어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있어야 했다. [제1편 p.371 #979]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교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왕좌로 자유롭게 다가갔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 하셨나이다. 셀라. (시 32:5)

다윗왕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시 25:18)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다시 한 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사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시 51:2-4)

솔로몬왕 역시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거처에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하 6:21)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대하 7:14)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시 86:5)

누가 누구와 다룰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골 3:13)

그렇다면 왜 카톨릭교회는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까요? 다음의 교리 문답서 인용 구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죄 사함이 없었다면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과 영원한 해방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교회에 맡겨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213, 8.)[제1편 p.373 #983]

로마 카톨릭교인들은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죄가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용서될 수 있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안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 결론

교회가 죄를 용서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카톨릭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카톨릭주의의 전통이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홀로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네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시 103:2-3)

## 4 단 하나의 참된 교회

The One True Church

카톨릭주의는 여전히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카톨릭교회의 공식적 입장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를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변<sup>4)</sup>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라고 고백한다. [제1편 p.314 #811]

카톨릭교회를 언급하면서 교리 문답서는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 단일 유일한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제1편 p.317 #817]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므로 공변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카톨릭교회가 있다. [제1편 pp.322-323 #830]

다른 성경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단 하나의 참된 교회라는 교리는 성경의 한 구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실 그 구절은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마 16:16)

4) '공변되다'는 말은 영어 단어 'Catholic'을 번역한 것으로 '전 우주적' 혹은 '보편적'이라는 말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카톨릭주의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바위)이라고 지칭하셨으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카톨릭교회가 그 약속 위에 세워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성경기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고전 10:4)

예수님께서서는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으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시니라. (엡 2:20)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 118:22)

카톨릭교회가 이른바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잇돌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행 4:10-11)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벘전 2:7)

성경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결코 그 반석이 아닙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오? (시 18:31)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니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신 32:3-4)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62:1-2)

주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로다. (시 94:22)

##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이러한 모든 성경기록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는 여전히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이고 베드로의 계승자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합니다.

(카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서 우리 구원자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맡겨 사목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전파하고 다스리게 하신 교회이다.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 단체로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카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 [제1편 p.316 #816]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 1:18)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엡 1:22)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엡 4:15)

##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며 결코 카톨릭교회의 회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전 1:2)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엡 5:25)

바울은 결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았습니

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감히 바울이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직 카톨릭 신자들만 사랑하신 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카톨릭교회가 유일한 교회였다면 그렇게 말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엡 5:2)

### 카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자신들만이 단 하나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주의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이 카톨릭교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례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 몸에 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당연하며 카톨릭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치교령 3항)(제1편 p.317 #818)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카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카톨릭 교리 문답서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기록에 의하면, 카톨릭교회가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엡 1:6)

## 결 론

단 하나의 참된 교회

이 순간에 여러분은 몇 가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인가요? 교리 문답서는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 카톨릭교회가 단 하나의 참된 교회인가요? 교리 문답서는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 여러분은 진정으로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바가 사람들의 전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질문 곧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 15:3)

# 5

## 세례를 통해서 얻는 구원

Baptism Saves

카톨릭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침례(세례)<sup>5)</sup>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주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 [제2편 p.467 #1257]

모든 카톨릭교인들은 주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침례(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카톨릭주의가 고안한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제2편 p.468 #1257]

세례 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과연 건진 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제2편 p.455 #1212]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와 한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제2편 p.455 #1213]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5) 성경에는 '세례'가 없고 모두 '침례'이지만 카톨릭교회에서는 '세례'를 쓰므로 문맥상 '세례' 혹은 '침례(세례)'라 표현한 곳이 있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2)

이러한 명백한 성경 구절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교우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제2편 p.470 #12653]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즉 원죄, 본죄와 죄로 인한 모든 벌까지도 사해진다. [제2편 p.469 #1263]

이 모든 교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침례(세례)와 같은 어떤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는 결코 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엡 1:7)

만일 침례(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7)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14)

침례자 요한이 전했던 것도 침례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 3:2)

사람들은 회개한 후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마 3:6).

침례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들어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행 8:36-37)<sup>6)</sup>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행 16:31-33)

먼저 그들은 믿었고 그 후에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침례는 언제나 구원받은 후에 받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

6) 개역성경은 불행하게도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본문에서 삭제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 이 구절을 사본에서 삭제하였으며 개역성경이 이렇게 부패된 천주교 사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행 18:8)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카톨릭교회가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말을 끝마쳤을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행 2:41)

여기서도 역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침례를 받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습니 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후에 침례가 뒤따랐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행 8:12)

이 단락 바로 뒤에 마법사 시몬도 동일한 순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행 8:13)

이제 카톨릭주의의 교리 문답서를 다시 살펴볼까요?

성사들 특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세례 성사는 모두를 서로 묶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끈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제1편 p.361 #950]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분 옆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결코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갔습니다. 왜 그

럴까요? 그 이유는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침례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 문답서는 또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사들 안에 그 능력으로써 현존하시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제2편 p.413 #1088]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또 하나의 카톨릭 전통일 뿐입니다.

## 또 하나의 모순

여기 침례와 관련한 또 하나의 카톨릭 교리가 있습니다.

과연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다. [제2편 p.473 #12]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한 번 카톨릭 교리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엡 1:13)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엡 4:30)

## 결론

세례를 통해서 얻는 구원

침례(세례)는 구원에 필수적인가요? 카톨릭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다. 카톨릭주의는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 6

##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

The Pope : Vicar of Christ

과연 교황은 전 교회에 걸쳐서 우주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가요? 여러분께서 카톨릭의 교리 문답서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교회헌장 22항, 주교 교령 2:9항)[제1편 p.342 #882]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 [제1편 p.344 #891]

카톨릭교회가 교황을 모든 신자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 14:26)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 16:13)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 선생님 곧 위로자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요 14:16)

분명히 교회 역사를 통해 교황은 성령님께서 부여된 지위를 스스로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떤 사람도 차지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2:11)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무요류한 스승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고전 2:12-13)

## 유사성이 있을까요?

만일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면 예수님의 삶과 교황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거대한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단체 중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언제나 화려한 제왕의 복장만을 입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소박한 환경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가는 곳마다 호화로운 대접을 받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서민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자가용 비행기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만을 만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분을 배척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습니다.
- 교황은 사람들의 경배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경배를 아버지께 돌리시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 10:18).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황.  
교황이 단번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교황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 ‘교황’ (?)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행 10:25-26)

### 교황은 과연 교회의 머리인가요?

교리 문답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 전권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살핀다. [제1편 p.358 #937]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황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 지위는 독점적으로 주만 홀로 차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엡 5:23)

교황의 칭호인 성부 곧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 23:9)

그런데도 교황은 ‘아버지’ (Father)라는 칭호를 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한 분께만 사용해야 하는 칭호인 성부 즉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라는 칭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 하리이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 15:4)

하나님께 부여된 칭호를 주께넘겨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과도 나누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2:8)

## 그 밖의 질문들

또다시 카톨릭 교리와 성경기록은 심각하게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다음 질문들에 대해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내셨노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 어째서 성경은 교황이 아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 왜 카톨릭교회는 예수님 대신에 교황이 최종 권위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 왜 카톨릭교회는 성령님 대신에 교황이 여러분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명백한 우상 숭배의 주인공 교황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출 20:4-5)

## 결론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

오직 여러분만이 스스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여러분만이 어느 것을 믿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톨릭주의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 2:10)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 1:18)

# 7 오류가 없는 교황

The Pope : Infallible

카톨릭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교황은 믿음과 도덕 및 교리 문제에 있어서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 준 교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진리이신 당신의 무류성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셨다. '신앙에 대한 초자연적 감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탈선함이 없이 신앙을 지킨다'. (교회헌장 12항, 계시헌장 10항)[제1편 pp.343-344 #889]

교리 문답서는 이러한 확신을 다음과 같이 거듭 천명합니다.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하여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 이러한 무류성은 하나님 계시 유산의 범위와 동등하게 광범위하게 미친다. (교회헌장 25항)[제1편 pp.344-345 #891]

매우 애석한 일이지만 이러한 교리는 성경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무도 완전하거나 무오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 3:10)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없나니 교황밖에는 없으며”

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사셨던 사람들 중 절대 오류가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사람들의 영광만을 탐하는 교황

## 다른 카톨릭교인들 역시 오류가 없나요?

교리 문답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카톨릭주의의 다른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무오류의 경지에 어느 정도는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직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의 진리 안에 머물도록 보살피는 직무이다.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사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제1편 p.344 #890]

사목자들이 행사하는 교도권의 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지켜 나가기에 필요한 교리 조항에까지 미친다. [제3편 p.712 #2051]

하나님께서 일부 카톨릭 지도자들이 오류가 없다고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행 13:22)이라고 하셨을지라도 다윗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엡 3:8)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sup>1)</sup>이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딤후 1:15)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한 분 외에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그 외 몇 가지 질문

비성경적이라는 점은 일단 접어 두고라도 이처럼 도에 지나친 교리는 당신 스스로 답변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일으킵니다.

- 스스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황을 포함한 다른 카톨릭 지도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상치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기꺼이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시겠습니까?
-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당신이 여러 카톨릭 지도자들 및 교황이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믿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은 카톨릭 교회의 회원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에 더욱더 복종하게 하고 사람들을 철저히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일부 사람들은 오류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부여받았을까요?
-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류가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할까요?

## 결 론

오류가 없는 교황

여기 의문점 투성이인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카톨릭 교리를 무턱대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어라 답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히 5:9)

# 8

## 성사를 통해서 얻는 구원

The Sacraments Save

성사(聖事)들은 구원을 받는 데 필수적인가요? 다시 한 번 교리 문답서의 대답을 들어 봅시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트렌트 공의회 DS 1604)[제2편 p.426 #11291]

### 성사란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다. 즉,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가 있다. [제2편 p.421 #1113]

사실 이러한 일곱 가지 성사는 선행 시리즈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선한 행위가 결단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음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 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롬 3:20)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사 64:6)

## 구원받으려면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만 하나요?

성사들이 구원에 필요하고 그 성사들이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실한 카톨릭교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카톨릭의 대변자를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카톨릭 교리가 명확히 전달해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사람들의 전통(유전)

카톨릭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성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통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혹은 카톨릭교회가 사람들을 평생 동안 교회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의 협박 아래 사람들을 겁주려고 사람의 전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가, 성사들을 통한 구원인가?

만일 성사들이 구원에 필요하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할까요?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사도 바울은 구원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고전 1:18)

카톨릭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성사들과 같은 선행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8:40)

예수님께서 틀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리셨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

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 8:47)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종교인들의 특징인 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며 중세 암흑시대를 이끌고 간 교황과 수도승들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뒷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막 12:38-39)

## 결론

성서를 통해서 얻는 구원

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해 카톨릭교회의 교리를 수용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아무 의심 없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로서는 여러분이 심히 걱정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갈 2:16)

# 9 자만의 죄

## The Sin of Presumption

로마 카톨릭주의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는 것이 자만의 죄라고 주장합니다.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늘의 도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는 형태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도 있다. [제3편 p.729 #2092]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카톨릭교회는 스스로 다시 한 번 기록된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낙원인 천국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고 또한 지옥이라 불리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한쪽을 얻고 다른 쪽은 피할 수 있는가를 알려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불꽃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함께 낙원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많이 선행을 쌓아라. 그리고는 행운을 빌고 장차 내 앞에 서게 될 때

에 희망을 잃지 말도록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그것은 고도의 잔학 행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끔찍한 고통의 장소를 피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고도 쉽게 한 자 한 자 설명해 주시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사실을 지금 당장 알 수 있다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담대히 주장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실이며 주 예수님의 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 10:27-2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 6:47)

잘 살펴보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이 선행을 충분히 쌓으면 언젠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 6:40)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단언하는 것을 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빌 1:23)

사랑하는 카톨릭 신자 여러분, 이러한 카톨릭주의의 교리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카톨릭교회는 여러분이 더 이상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낄까 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면서도 속박 가운데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딤후 1:2)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일 2:25)

##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요 3:3)

이렇게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2)

일단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롬 8:17)

상속자로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벧전 1:4)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미 예약되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2)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서 안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위의 종교에 속박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은혜에 기초해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 노심초사하면서 불안과 번민으로 고문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러한 경이로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저의 믿음을 주님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에 두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행에 복종함으로써 천국에 가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행이 결코 저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셔들이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을 로마 카톨릭교회(혹은 비복음적 교회)에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겠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보여 주신 것과 제 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을 때에 천국에 갈 것을 보장받았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 자만인가,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하실 것입니다.

## 결 론

자만의 죄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롬 8:16-17)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시 37:28)

# 10

## 유아 세례

Infant Baptism

유아 세례는 카톨릭교회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 문답서의 진술을 들어 봅시다.

어린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 세례로 새로 나아 하며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부름을 받는다. 구원의 은총이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 세례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제2편 pp.465-466 #250]



교리 문답서는 또한 이러한 기본 교리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은 2세기부터 분명하게 확인된다. [제2편 p.466 #1252]

교리 문답서는 이 교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낸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가 바로 이 경우에 잘 들어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골 2:8)

## 성경적인 침례

유아 세례 행습을 특히 반대하는 이유는 유아가 세례(침례)받는 장면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침례는 전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성한 어른이였을 때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마 3:16)

성경을 통틀어서 침례는 언제나 구원받은 후에 행하여졌습니다. 빌립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침례받을 당시에 성인이었습니다.



[빌립이]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8)

다른 여러 사람들도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행 18:8)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고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  
3:6)

의심의 여지없이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거나 혹은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침  
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 빌립보 간수의 경우

바울 사도를 맡아서 감시하던 빌립보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  
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행 16:30) 사  
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31절)고 말했습니다. 그리  
고 간수가 믿은 후에 바울은 즉시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33절).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후에 그의 말을 기쁘  
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고 그날 제자들에게 삼천 혼가량이  
더하여졌습니다(행 2:41).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성인 남녀 모두가 침  
례를 받았지만 유아는 아무도 침례를(심지어 세례도) 받지 않았습  
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행 8:12)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만 침례를 받도록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째서 카톨릭주의는 갓 태어난 아이들도 세례를 받도록 요구할까요?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을 지체 없이 카톨릭 교회 울타리에 가두어 버리려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빌립이]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into the water)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out of water)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행 8:38-39)

만일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여러분은 실제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나요, 아니면 그저 몇 방울의 물로 뿌림을 받았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편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전통 중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 11

## 죄의 경중

Degrees of Sin

로마 카톨릭주의는 신자들에게 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관념을 주입합니다.

죄는 그 경중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3편 p.657 #1854]

첫째로 가벼운 죄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 즉 소죄가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에 대해 윤리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윤리법을 어겼지만 완전히 인식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죄가 된다. [제3편 p.659 #1862]

다음으로 죽을죄가 있습니다.

죽을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박탈을 초래한다. 만일 죽을죄가 뉘우침과 하느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제3편 p.659 #1861] [#1014, #1033, #1035, #1037 참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의 위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죽을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회개가 필요한가요?

- 죄가 용서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죄의 경중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성경은 왜 아무런 언급이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교리 문답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합니다.

###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려보면 카톨릭주의의 교리 문답서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 3:4)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죄의 대가로 우리는 모두 죽음과 지옥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롬 6:23)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죄들을 보다 무거운 죄로 차별화하지 않으며, 단순히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단

번에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히 10:12)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유일하게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 1:14)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 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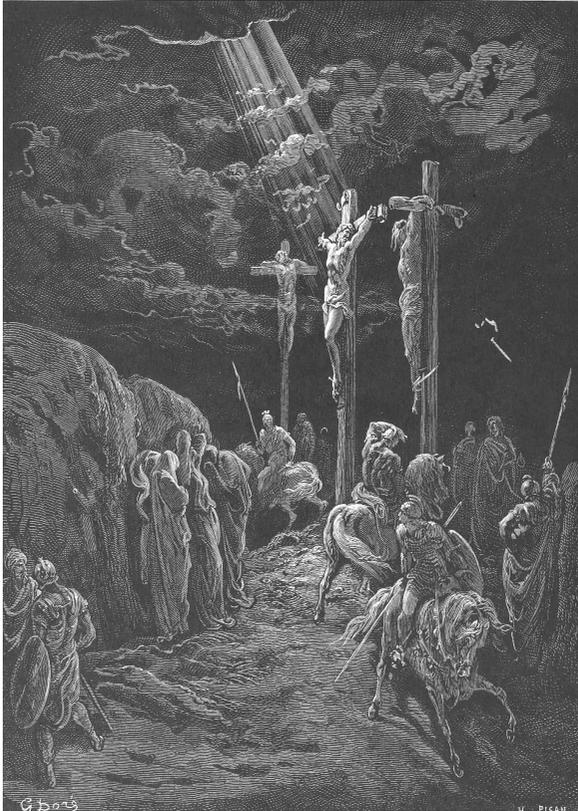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아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일단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17)

##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끌어내리는 행위**

여기에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예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주님의 희생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을 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주의는 비천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값을 지불할 수 있

다고 선언함으로써 주님을 끌어내리고 그분께서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한 번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심각하고 여러 가지 죄의 경중에 따라 지속적인 선행이 요구된다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주의의 노예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고전 15:3-4)

# 12 화체설 : 실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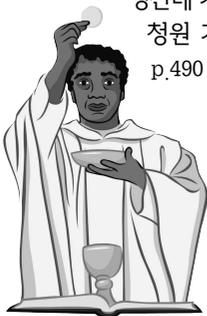
Transubstantiation

로마 카톨릭주의는 미사 중에 사제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빵과 포도주를 실제적이고도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카톨릭 신앙을 요약하여 선포한다,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 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써 빵의 실제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 포도주의 실제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제로 변화한다. 카톨릭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제 변화라고 불러왔다.” [제2편 pp.506-507 # 1376]

교리 문답서의 이 인용 구절은 수백 년 전에 트렌트 공의회가 규정한 이러한 교리를 카톨릭교회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성찬례 거행의 중심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제2편  
p.490 #13331]



교리 문답서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성체 즉 빵 속으로 들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체의 형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그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현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며 또 그 각 부분에도 현존하시므로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신다. [제3편 p.507 # 1377]

로마 카톨릭주의가 자기 회원들에게 그야말로 식인종의 의식과 비슷한 의식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이 교리를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교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인지 말입니다. 카톨릭주의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화체설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 6:53-54)

이 한 구절만 볼 때에는 이것이 식인종의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문맥 가운데서 전체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3-35)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일관되게 이러한 가르침을 보여 줍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그분의

신체를 뜯어먹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  
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 6:40)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생이 주어짐을 지적하십  
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놓고 응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  
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 6:63)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으며 결코 육  
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생명이 자신  
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영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몸을 먹음으로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  
서도 사람을 먹는 풍습을 권장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그리  
한 행습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창  
9:4)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레 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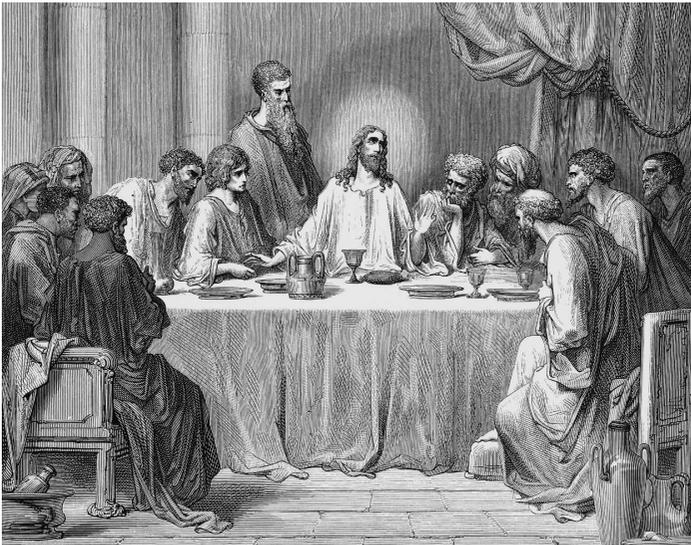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손수 엄히 금하셨던 것을 자신의 자

너들이 지금 행하도록 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성경의 논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밝은 빛을 비춰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고전 11:23-24)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의 제자들이 팔을 뻗어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으라고 권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제안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실 것에 대해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을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재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고전 11:25)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눅 22:19)

화체설 또는 실제 변화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비성경적인 카톨릭 전통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기심을 자아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카톨릭주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어째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경에서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는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도 않는 교리를 고의적으로 만들까요?
-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먹도록 할까요?
-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행습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약 4:17)

# 13

## 죄로부터 신자를 보호해 주는 성체 성사

Eucharist : Preserves from Sin

과연 성체(聖體)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카톨릭교인들을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고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능력을 부여할까요?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준다. [제2편 p.513 #1393]

성체 성사는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래의 죽음죄(死罪)에서 보호한다. [제2편 p.514 #1395]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카톨릭 전통은 크게 어긋납니다.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모든 죄가 씻겨 없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계 1:5)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교리 문답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자격을 빼앗아서 제병(祭餅)이라고 불리는 성체 즉 얇은 과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할까요?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고전 6:11)

### **앞으로 지을 죄로부터의 보호?**

빵 조각을 먹는 것이 누군가를 앞으로 짓게 될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카톨릭주의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실제적인 기능은, 회원들이 성체 성사가 자신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성체를 받기 위해 카톨릭교회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카톨릭교회의 굴레에 붙들어 놓는 것 외에는 이 같은 성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는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 119:11)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시 119:9)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톨릭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시 121:7)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며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에워싸시리이다. 셀라. (시 32:7)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딤후 4:18)

## 결 론

죄로부터 신자를 보호해 주는 성체 성사

여러분을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카톨릭주의는 여러분이 빵 조각에 기대를 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카톨릭 교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성경 말씀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 24-25)

# 14

## 죽은 자들에게도 유익한 성체 성사

Eucharist : Helps the Dead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살아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찬례의 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는 못한' (트렌트 공의회) 죽은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바치는 것이기도 하다. [제2편 p.504 #1371]

성찬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지닌 파스카적 의미의 핵심이 된다. 이때 교회는 죽은 이와 이루는 효과적인 통공을 표현한다. [제2편 p.608 #1689]



참으로 구미가 당기는 이 교리는 카톨릭 신자들이 규칙적으로 성체 성사에 참여하면 이미 고인이 된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이 보다 빨리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믿음을 심어 줍니다. 만일 이러한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에 순종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 두기 위해 사람이 고안한 전통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 **어떠한 근거도 없는 교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살살이 살펴봐도 성체 성사 즉 미사가 죽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은 단 한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어느 누구도 이미 고인이 된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성체 성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미 짐작하신 대로 이러한 카톨릭주의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롬 14:12)

###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선하신 사역 곧 ‘그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의나 친구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 죽음 그다음은 심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 있더라도 이미 지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 3:18)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성경은 누군가가 이미 고인이 된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성체 성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지 않음을 밝히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 결론

죽은 자들에게도 유일한 성체 성사

자 또다시 여러분의 답변을 요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도대체 왜 카톨릭교회의 이런 전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토록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까요?
-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자기 회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기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행습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 이러한 교리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에 계속해서 붙들어 두려는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골 2:8)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 17:17)

# 15

## 마리아 : 또 다른 구원자

Mary Saves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리 문답서의 대답을 들어 봅시다.

(마리아는) 하늘에 올림을 받은 후에도 이 구원의 역할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여러 가지 전구<sup>7)</sup>로써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얻어 준다. [제1편 p.367 #969]

성 이레네오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순명<sup>8)</sup>함으로써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되신 것이다. [제1편 p.185 #494]

마리아는 순명과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써 영혼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자의 구원 사업에 비길 데 없는 협력을 해 드렸다. 이 때문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 [제1편 p.367 #968]

과연 이 교리가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 사역의 전 과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계시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행 4:12)

7) '전구'는 영어로 'intercession'으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의미임.

8) '순명'이란 영어로 'obedient'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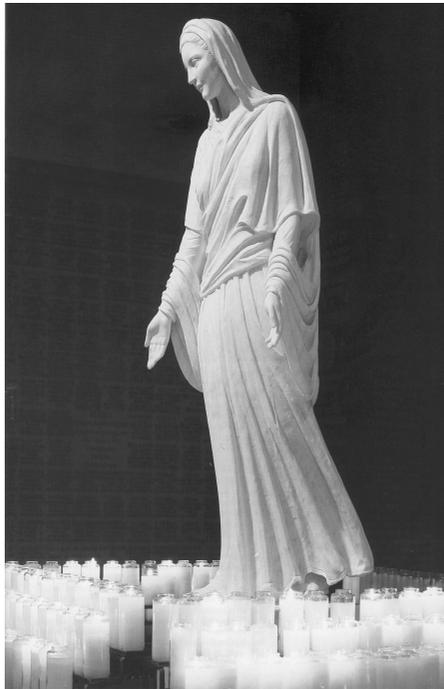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자신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 14:6)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9)

그러나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들의 구세 사업과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의 모친 복되신 마리아를 ... [제2편 p.442 #1172]



또 다른 구원자 마리아에게 바치는 촛불

여러분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 중에서 어떤 것을 믿을지 다시 한번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단 한 점의 혼동도 없이 분명합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 43:11)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 13:4)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별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지요, 나의 피난처지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삼하 22:3)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한 천사가 그분께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 1:21)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눅 2:11)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읽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요 4:42)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5:31)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행 13:23)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 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딤후 1:10)

*바울은*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딤후 1:4)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딤후 3:6)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노니 (요일 4:14)

로마 카톨릭주의가 첫 번째 교황으로 인정한 베드로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벧후 1:1)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벧후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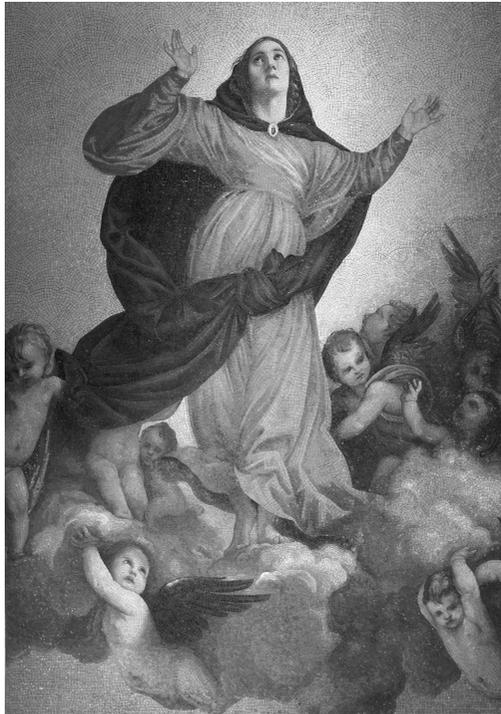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벧후 2:20)

명백히 베드로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기에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양했습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벧후 3:18)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8-19)

의심의 여지없이 예수님께서서만 홀로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승천 (매년 8월 15일이 기념일임)

## 결 론

마리아 : 또 다른 구원자

이번 주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또다시 대답을 요하는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 왜 카톨릭교회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에게 의지하기를 원할까요?
-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훔쳐다가 마리아에게 줄까요?
- 마리아가 구원에 한몫을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그렇다고 일러 주시지 않았을까요?
-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누구에게 위탁하시겠습니까? 카톨릭교회의 전통이 가르치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빌 3:20)

# 16

## 마리아 : 무염 시대

Mary : Saved from Birth

카톨릭주의는 마리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무염 시대 교리).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 [제1편 p.185 #493]

마리아는 전혀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였으며 아드님의 인격과 사업에 당신 자신을 주의 종으로 온전히 바쳤다. [제1편 p.185 #494]

‘은총이 가득한’ 그 이(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빠른 열매’ (전례헌장 103항)이다. 그 이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죄에 물들지 않았다. [제1편 p.190 #508]#7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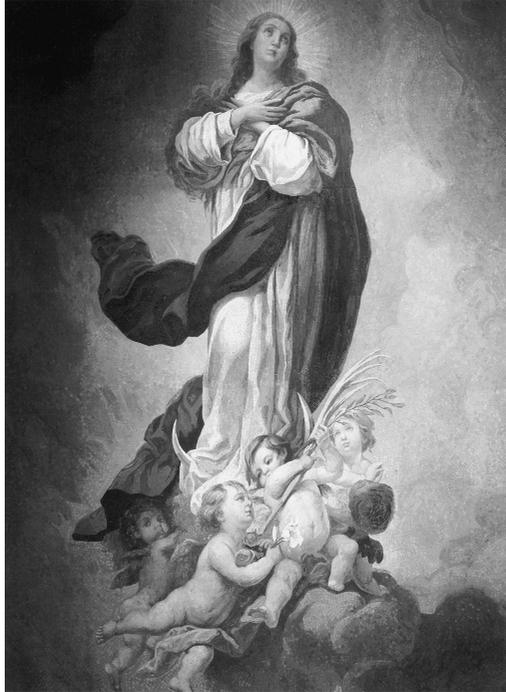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을까 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리 문답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카톨릭교회의 전통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가 수태되는 순간부터 구속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1편 p.184 #491]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마리아의 무염 시태 (죄 없이 태어남)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롬 3:10-12)

잘 보십시오. 이 구절 중 어느 한 구절도 “모두가 죄를 지었다. 마리아만 빼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갈 3:22)

마리아도 자신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눅 1:46-47)

하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기 회원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요구합니다.

복된 동정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신심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적 요소다. (마리아 공경 56항)[제1편 p.368 #971]

##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고귀하게 높이셨나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뵈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 12:48-50)

예수님께서서는 어서 이 축복받은 여인을 모셔 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리아와 다름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마리아를 특별히 받들지 않았습시다.

###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를 떠받들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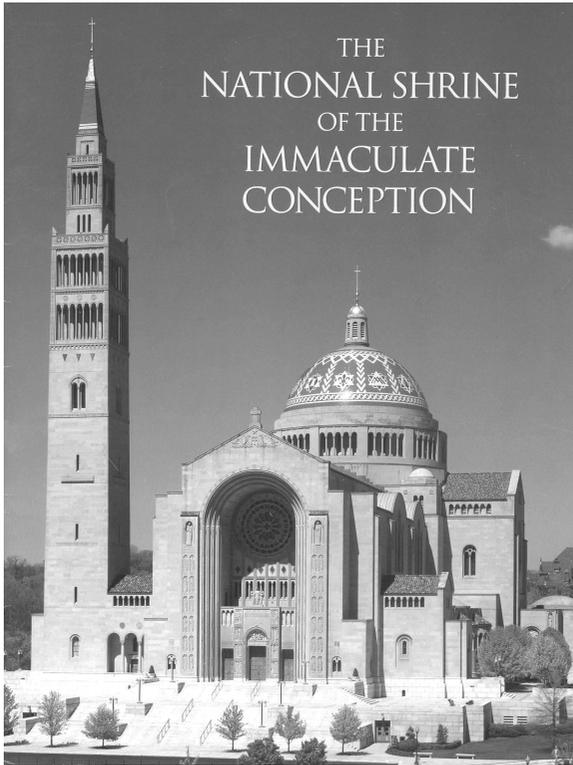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를 칭송하려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이 뵈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 11:27-28)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서는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구절들을 성경기록에 넣어 두셨나 봅니다.

## 반복되는 현상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현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를 누군가가 자꾸 강탈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로마 카톨릭주의는 예수님을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일축하고는 마리아 역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7대 성당 중 하나인 마리아 무염 시태 사원  
(미국 워싱턴 DC)

## 결 론

마리아 : 무염 시태

과연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습니까? 카톨릭 전통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 주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 7:20)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롬 5:12)

# 17

## 마리아 : 평생 동정녀

Mary : Perpetual Virgin

교리 문답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안 처녀로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해 봅시다.

마리아는 동정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수태하고, 동정으로 그분을 낳고, 동정으로 그분을 길렀으며, 동정으로 당신의 젖을 먹였고 항상 동정이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186,1)[제1편 p.191 #510]

교회 전례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 로 찬미한다. (교회현장 52항)[제1편 p.188 #499]

마리아가 평생 동안 처녀로 지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취하게 될 입장은 여러분이 어느 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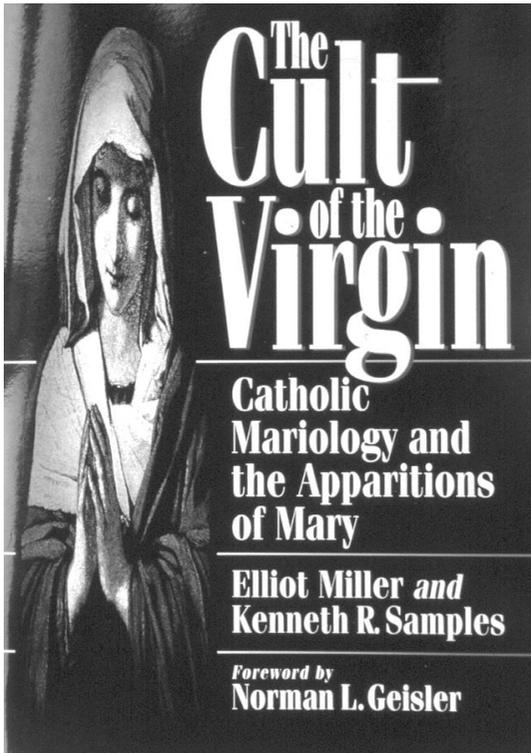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마 13:55)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막 6:3)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갈 1:19)

이 구절들이 카톨릭 교리에 너무나 명백하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교리 문답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리아 숭배 종파

종종 성서가 예수님의 형제자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항상 이 대목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왔다. 사실 ‘예수의 형제들’ (마 13:55) 야고보와 요세는 ‘다른 마리아’ (마 28:1)라고 명시된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제1편 p.188 #500]

다른 마리아라고요? 왜 성경기록을 왜곡합니까? 이 구절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톨릭교회는 의도적으로 신자들을 속일까요?

이러한 교리는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초월한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또한 이 교리는 마리아가 독신 생활을 하는 지금의 신부들 및 수녀들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독자께서는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 이교도들의 풍습

도대체 무슨 이유로 카톨릭교회는 마리아를 이처럼 ‘영원한 처녀’의 상태로 끌어올리려는 것일까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로마 카톨릭주의의 마리아와 구약 시대에 숭배되던 이교도의 여신들 사이에는 놀랄 만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숭배하는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보다는 이교도들의 여신과 한층 더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렘 44:17-19).

## 결 론

마리아 :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신비하게 ‘평생토록 처녀’였을까요? 이 문제 역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전통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든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시 119:160)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덕 즉 거룩함의 본보기요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성덕(holiness)의 모범을 배우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성덕의 본보기와 근원을 알아보고 [제1편 p.706 #2030]

우리가 또 하나의 모순점에 봉착했다고 해도 이제 독자께서는 과히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 장에서 논의한 대로 성경은 마리아 역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는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를 거룩함의 근원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받은 자라 하리라. (눅 1:47-48)

###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성덕)의 근원

성경은 반복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심을 단언합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 15:4)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 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시 99:5)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시니이다. (시 99:3)



THE MIRACULOUS MEDAL CHAPEL

기적과 성덕의 근원 마리아 (미국 워싱턴 무염 시데 사원)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 99:9)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사 6:3)

성경에서 거룩 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600번 이상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마리아를 의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벧전 1:15-16)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레 11:44)

로마 카톨릭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거룩함의 본보기와 근원으로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주의는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 덧없는 인간에 불과한 한 여인을 의지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섭니다.

이것은 지독한 신성모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왜 카톨릭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셔야 할 권좌에서 그분을 몰아내고는 그 자리에 마리아를 앉히려고 할까요?
- 왜 카톨릭주의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마리아를 거룩함의 모범으로 삼

기를 원할까요?

-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8:11)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화의 상징적 의미



- ①  $\tilde{M}\tilde{P} \tilde{\Theta}\tilde{Y}$  : '하나님의 어머니' 라는 그리스어의 머리글자
- ② 머리 위에 그려진 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별임을 뜻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Mother of God)로 만든 천주교.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신성모독죄가 아닌개.

## 결 론

마리아 : 성덕의 근원

누가 우리의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죄 있는 한 여인입니까? 로마 카톨릭주의는 여러분이 그 여자를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거룩함의 모범이 될 자격이 있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계 4:11)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 나라. (사 43:15)

# 19

## 마리아 : 또 다른 중재자

Mary : The Intercessor

많은 신실한 카톨릭교인들은 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중보자라고 믿으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된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교회헌장 62항) [제1편 pp.367-368 #969]

위의 헌장에는 마리아에게 부여된 네 개의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런 칭호들을 모두 성취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 변호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변호자라는 믿음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전통 즉 인간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변호자라고 선언함으로써 카톨릭 교리를 일축해 버립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 보조자(돕는 이)

다신 한 번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초자연적인 보조자라고 선언함으로써 카톨릭주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하시는도다. (시 54:4)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히 13:6)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시 34:19)

## 협조자

여기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쌓아 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협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중재자

성경은 결코 마리아를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한 중재자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딤후 2:5)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9:15)

## 참된 중재자

중보자나 변호자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전통은 이 지위를 마리아에게 부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재자로 드높이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히 9:24)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히 7:25)

성경은 참된 중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롬 8:34)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롬 8:27)

성경은 아버지께 다다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엡 2:18)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엡 3:11-12)

사실 마리아는 성경 어디서도 증재자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반복되는 예수님의 위상 격하

성경은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변호자시요, 돕는 분이시요, 증보자이시며 증재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카톨릭교회의 전통은 이러한 네 개의 칭호를 그분으로부터 강탈해서 마리아의 무릎에 갖다 바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서 그들은 매번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할까요? 어쩌서 카톨릭주의는 성경이 예수님께 부여한 모든 지위를 그분으로부터 빼앗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게 바칠까요? 과연 마리아가 그렇게 고귀하다면 어쩌서 사도 바울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을까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고전 2:2)

## 결 론

마리아 : 또 다른 중재자

이제 여러분은 성경과 카톨릭 전통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광을 마리아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전통을 거부하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히 8:6)

카톨릭 교리는 신자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우리가 불쌍한 죄 인임을 깨달으며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 즉 '자비의 어머니'께 호소한다. 마리아는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가 저세상으로 건너가는 시간에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맞아들여 천국에 계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비는 것이다. [제4편 pp.912-913 #2677]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들이 하나님 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청원하는 것 :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의 전통
- 자비의 어머니 :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
- 마리아를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높이는 것 : 사람의 전통.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 우리가 저세상으로 건너가는 시간에 마리아가 우리를 맞아들임 : 성경이 가

## 르치지 않는 사람들의 전통

- 마리아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함 :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전통

카톨릭 신자 여러분, 부디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초기 카톨릭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전통들에 불과합니다.

사실 복된 동정녀는 오랜 옛적부터 ‘천주(하나님)의 모친’ (Mother of God)이란 칭호로 공경받고 신자들은 온갖 위험과 아쉬움 중에 그의 보호와 도움을 청한다. [제1편 p.368 #971]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과거의 카톨릭 지도자들이 조작해 내어 오늘날의 카톨릭교인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의 어느 누구도 결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리 문답서를 즉각 반박합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시 50:15)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 86:6-7)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시 91:15)

참으로 수백 구절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도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시 37:39)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사 33:2)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시 41:1)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마리아에게 의탁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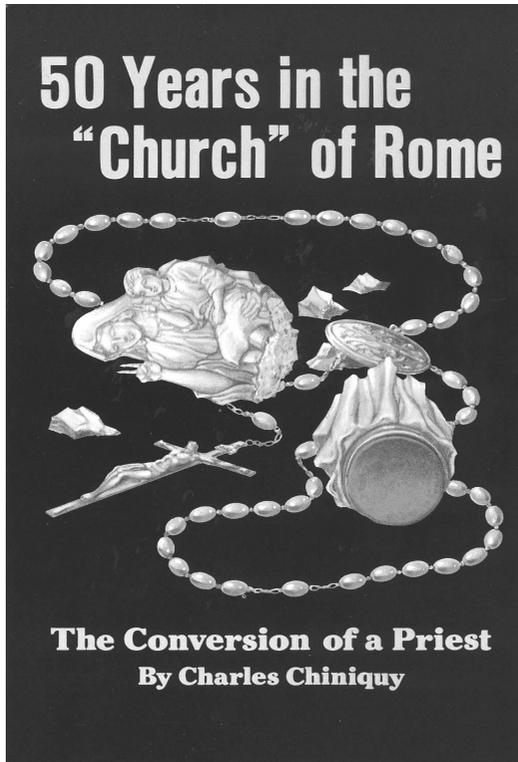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

다윗왕은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시 55:17)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시 145:18)



50년간 천주교에 있다가 회심한 치니퀴 사제의 고백록  
(미국 Chick 출판사, [www.chick.com](http://www.chick.com))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 누구에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주의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은 어째서 카톨릭교회의 교리 문답서가 예수님을 격하하고 마리아를 격상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카톨릭교회는 신자들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장을 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 11:28)

성경이 틀렸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로마 카톨릭주의가 막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결 론

마리아 : 기도의 응답자

이제 당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카톨릭 전통을 따라 마리아에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에 관한 한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 55:16)

# 21

## 마리아 : 천지의 여왕

Mary : Queen Over All Things

로마 카톨릭주의는 마리아가 죽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녀에게 ‘천지의 모후’ 혹은 ‘만물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하며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동정녀(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Queen over all things)로 추대받았다. [제1편 p.366 #966]



여기서 다시 한 번 카톨릭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충돌을 일으킵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가르침을 책망합니다. 예레미야서 44장에

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여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으로 알려진 거짓 여신에게 예배하는 행습을 보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켰음을 알게 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렘 7:17-18)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거짓 여신에게 예배했을까요?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다 행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에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겠느냐? 하므로 (렘 44:17-19)

로마 카톨릭주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교도들의 그 동일한 종교 의식을 물려 받은 체제가 아닙니까?



## 이방 종교

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호기심 있는 카톨릭 교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많은 거짓 종교들을 연구함으로써 카톨릭주의와 그것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 사실에 매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여신들을 지칭하는데 그토록 자주 사용되었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카톨릭주의의 주장은 참으로 놀랄 만한 것입니다.

### 누구를 높여야 하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주의는 마리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오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시 57:5)

주께서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이다. (시 18:46)

주여,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시 21:13)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시 46:10)

백성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이/들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는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셨도다. (시 47:9)

주께서 높여지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히 채우셨기 때문이라. (사 33:5)

##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943회 나오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533회 그리고 주 예수라는 이름은 115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의 나머지 책들도 그분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저 손에 꼽을 정도로 등장하며, 결코 어떤 것의 여왕으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빌 2:9-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계 5:12)

누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벧전 4:11)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5:31)

무슨 일이 반복되는지 아시겠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힘쓰는 반면 카톨릭주의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마리아를 높이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해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한 여자에 의해 대체되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 결론

마리아 : 천지의 여왕

로마 카톨릭주의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천지의 여왕’ (Queen of all things)의 반열로 드높이셨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격노케 한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허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 22

## 미사

### The Mass

카톨릭 교리 문답서를 그대로 믿는다면 천주교 미사를 행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재화되고 우리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바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미사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이 희생 제사에 피 흘림 없이 계시고 제헌되신다. (트렌트 공의회)[제2편 p.502 #1367]



성찬례<sup>9)</sup>를 거행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Passover, 유월절)를 기억하며 이 파스카는 현재화된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항상 현실적인 것으로 존속한다. 우리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2편 p.501 #1364]

그러나 성경은 대속 사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단 한 번에 완성된 행위임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9) 성경에는 '성만찬', '성찬례' 같은 천주교 용어가 없으며 오직 '주의 만찬' 만 있음.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 10:10)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단 한 번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2)

성경은 이러한 희생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히 7: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문답서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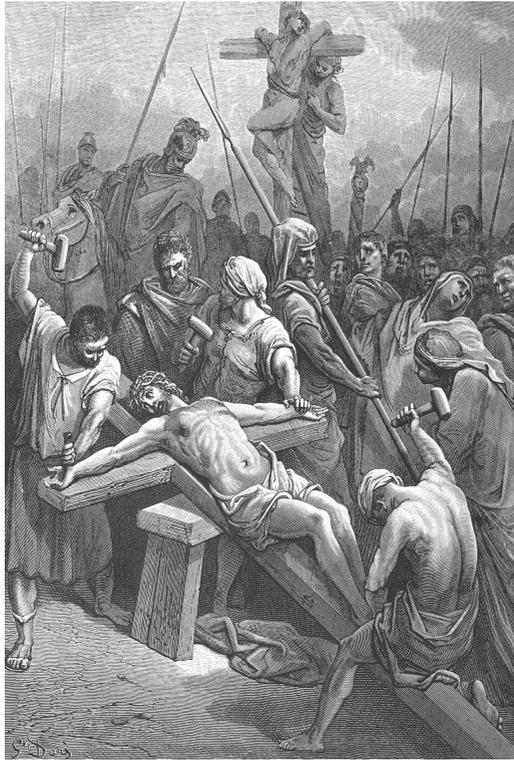
이 신비가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 (교회헌장 3항) [제2편 p.517 #140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역시 단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리 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 9:28)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히 10:12)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교리 문답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서 카톨릭교회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 같은 주장은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일로 인해 주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예를 그분으로부터 도적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희생으로서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났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 즉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유일하고 동일한 제사이다.[제2편 p.502 #1367]

이러한 발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종의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사제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스러운 죽음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톨릭교회의 종교 의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카톨릭교회는 대속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런 역할도 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영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카톨릭주의는 강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 카톨릭교회와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 결론



미사

독자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전통 중에서 어느 쪽을 신뢰할지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벧전 3:18)

로마 카톨릭주의는 죽음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연옥이라 불리는 장소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좀 더 정화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죽은 후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제1편 p.389 #1030]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 [제1편 p.389 #1031]

과연 이 위험한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일까요? 여기 정확히 카톨릭 교리 문답서로부터 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레نت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 … [제1편 p.389 #1031]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내세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과연 부당한 일입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연옥에 있다고 믿는 여러분의 사랑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곳에 있다고 말해 준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단의 종교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의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세상 여정에 남아 있고 어떤 이는 죽어 단련을 받고 어떤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으며' 영광을 누리고 있다. (교 회헌장 49항)(제1편 p.362 #954)

##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 전혀 그러한 장소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죽은 후에 좀 더 정화를 거치는 것이 천국 가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3)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롬 5:18)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시고는 나중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더욱이 그분이 성경 말씀 안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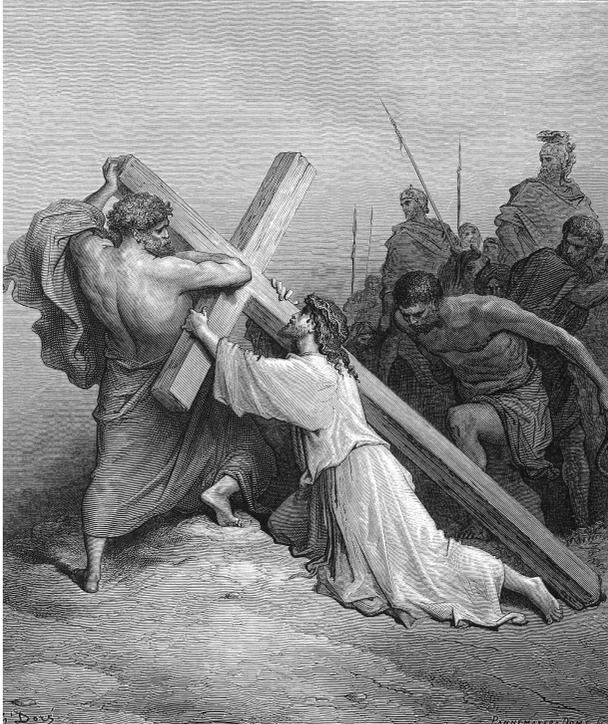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정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롬 5:9)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롬 3:24)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고전 6:11)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다 쓰러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정화되었습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져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므로 구원받기 위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20)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행 20:28)

## 결 론

연옥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이토록 분명한데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신실한 신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바치도록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최소한 연옥이라는 교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부화되어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롬 8:1)

# 24

##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Praying to Saints

교리 문답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선행으로 인해 교회가 성인 (saints)으로 선포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늘나라에 간 증인들 특별히 교회가 ‘성인’으로 인정하는 이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과 전해 오는 그들의 글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있는 기도의 전통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 있는 이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준다. 그들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함으로써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그들의 전구<sup>10)</sup>는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의 봉사 중 가장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간구해 주도록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 [제4편 pp.914-915 #2683]



이번 장에서는 먼저 ‘성인’ (saint)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톨릭주의는 성인이란 살아 있을 때 행한 선행들로 인해서 죽은 후에 성인으로 공포된 ‘엄선된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 ‘전구’는 영어로 ‘intercession’으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의미임.

교회는 어떤 신자들을 시성(論聖, canonize)함으로써 즉 그 신자들이 영웅적으로 덕행의 길을 닦고 하나님의 은총에 충실히 살았음을 장엄하게 선언함으로써 교회 안에 강력히 작용하는 성령의 힘을 인정하고 그 신자들을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과 전구자로 세워 줌으로써 그들의 희망을 복돋아 준다. (교회 헌장 40 ; 48-51항)[제1편 p.322 #828]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인<sup>11)</sup>(saint)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saints)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롬 1:7)

많은 다른 성경 구절도 똑같은 진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saints)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엡 3:8)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saints)와 함께 오시나니 (유 14)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saints)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엡 4:11-12)

이외에도 사도행전 9장 13절, 32절, 41절, 26장 10절; 로마서 8장 27절, 12장 13절, 15장 25절, 26절, 31절, 16장 15절; 고린도 전서 6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과 기타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을 참조해 보십시오.

---

11) 성경에서는 'saint' 를 성도(聖徒)로 표현했으며 이는 곧 성인을 뜻함.

## 왜 그들은 이러한 거짓 교리를 가르칠까요?

간략하게 말해서 이들이 꾸며낸 각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톨릭주의는 '성인' (성도)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던져 버리고는 새로운 것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자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성인들' (성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 성인들(성자들)이 중재자라고요?

또한 카톨릭주의는 소위 성인들(성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재자 곧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에서 벗어나 탄소리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일 뿐입니다. 성인들에 관한 흥미 있는 내용이 교리 문답서에 있습니다.

지상 여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consensus)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들과의 일치'<sup>12)</sup>(our communion with the saints)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는 것이니 [제1편 p.363 #957]

로마 카톨릭교회에 따르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보다 가까이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교리 역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전혀 가르친 바 없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사실 이처럼 죽은 자들과 접촉하는 행습은 접신술에 가까운 것으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강력히 정죄했습니다(신명기 18장 10-12절을 보십시오).

---

12) '성인들과의 일치'(communion with the saints)라는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수시로 암송하는 사도 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communion of the saints)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함. 즉 알게 모르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주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음.

## 결 론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대답해야만 하는 끈질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살아 계시고 능력이 막강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만들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전통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이 ‘성인들’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쓸모없이 지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놀라운 약속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히 4:16)

과연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돕기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죽은 이들과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이 같은 교류를 명백히 인식한 지상 여정의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초기부터 대단한 신심으로 '죽은 이들을 기억하였다', '죽은 이들이 죄의 사함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장하고도 경건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교회헌장 50항).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intercession)를 효과 있게 할 수도 있다. [제1편 p.364 #958]

여기서 세 가지 진술이 성경과 모순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죽은 이들이 죄의 사함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장하고도 경건한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장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기도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2.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 하나의 전통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러한 진술이 참된 것이라고 암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죽기 전에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3.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intercession, 중보)를 효과 있게 할 수도 있다.

블록을 쌓듯이 그들은 아무런 성경적 기초도 없이 전통 위에 전통을 얹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중보)를 효과 있게 할 수도 있다.

이제 명백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중재자들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도록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과연 우주의 창조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훼손시키는 태도입니까? 카톨릭주의의 입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방관자로 예수님을 묘사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마 28:18)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또 다른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시라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라 교회에 주셨느니라. (엡 1:20-22)

주 예수님을 권위와 능력이 부족한 영적 무기력자로 격하하는 카톨릭주의의 입장은 성경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친애하는 카톨릭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혼자서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히 7:25)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부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정이라는 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을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젊어서 카톨릭 신자였을 때 늘 저는 어쨌거나 이 모든 종교 규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십시오.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심각하게 좌천을 당하게 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시던 유일하고 신성한 중재자의 위치로부터 쫓겨나 죽은 인간들의 무리 속으로 내몰렸고 결국 많은 중재자 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카톨릭 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 결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다시 한 번 여러분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인 것을 알면서도 죽은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하는 교리를 고수함으로써 교회의 전통을 드높이겠습니까?
-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결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 15:9)

# 26

## 성상들 Statues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나 혹은 마리아 및 다른 사람들의 성상이나 성화들을 공경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당과 집에 있는 성화상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업에 관한 성화상을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흠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와 천사와 성인들의 성화상을 소중히 하면서 그분들을 공경한다.  
[제2편 p.448 #1192]



성상들이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두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출 20:4-5)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고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신 16:21-22)

성경은 어떠한 형태의 조각된 상이든지 그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 즉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나 땅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신 4:15-1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금하신 대로 어떤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 (신 4:23)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사람들이 새긴 형상에 경배드리는 것을 명백히 금하는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카톨릭 교회에서 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입니다. 교황이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 말씀에 관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출 20:4-5)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고전 10:19-20)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글자 그대로 마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상(우상)의 사용을 금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아서지 말며 너희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 19:4)

하나님께서서는 우상 숭배를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 5:11)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엡 5:5)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엡 5:6)

카톨릭교회가 당신을 헛된 말로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 **이러한 교리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카톨릭주의는 이러한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가장 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 교부들의 가르침과 카톨릭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결정한다. 그림으로 그려졌거나 모자이크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유서 깊고 거룩한 그림들과 귀중하고 생명을 다시 주는 십자가상은 하느님의 성당과 제기들과 제의에, 벽과 화판에 그리고 집안과 거리에 모셔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천주의 지극히 거룩하신 모친이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상이나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의 성화상도 마찬가지이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제2편 p.438 #1161]

이러한 교리는 교부들과 카톨릭교회의 전승(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카톨릭주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도록 거룩하게 영감받았다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 주제에 관해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

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시 135:15-18)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우상은 병어리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지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 결 론

성상들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상들(우상들)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일깨우고 고양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 26:1)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막 7:8)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견진 성사<sup>13)</sup>가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사(聖事) 중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의 은총을 완성한다. 견진 성사는 하느님의 양자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하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케 하며 말과 실천으로 그리스도 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돕는 성사이다. [제2편 pp.485-486 #1316]

문답서는 견진 성사가 카톨릭 신자들을 그리스도계로 보다 견고히 연합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견진 성사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보다 견고히 연합시킨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13) 천주교에서는 세례에서 이미 맺어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견진 성사를 통해 확고하게 된다 (혹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견고해짐)고 믿는다. 그리스도교 역사의 처음 몇 세기 동안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교도에서 개종한 성인(成人)이었으므로 세례와 그들을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견진 성사에 해당하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음)은 대개 동시에 행해졌다. 따라서 초대 교회 신학자들은 견진 성사의 의미와 효력을 세례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인보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가 되자 견진 성사와 세례를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생겼다. 오늘날 견진 성사를 계속 행하는 교회들은 견진 성사를 세례와 연관지어 생각하느냐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신학적 해석이 다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견진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례전의 하나로 본다. 견진 성사를 통해 신자는 성령의 은사(은총·힘·용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세례받은 지 7년이 되어야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주교가 의식을 집전하며, 견진 성사를 받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의 이마에 성유를 바른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후 5:17)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을 그 위치에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 보다 견고히 연합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견고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롬 8:1)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3)

## 영적인 표시라고요?

견진 성사의 이른바 또 다른 유익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 성사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영적인 표시 즉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 준다. [제2편 p.486 #1317]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뒤져 봐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영적인 표시를 새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없을 터인데 그 이유를 교리 문답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카톨릭 전승은 안수를 견진 성사의 기원으로 당연히 인정하였으며 [제2편 p.476 #1288]

견진 성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 곧 카톨릭 신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동안 행해야 할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아무 사제라도 견진을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 883조 3항). 왜냐하면 교회는 그 자녀들 중의 누구라도 아주 어린아이까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선물로 완전해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편 p.485 #1314]

## 견진 성사의 숨은 의도

이러한 종교 예식의 실제적인 결과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로 보다 깊숙이 끌어들이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리 문답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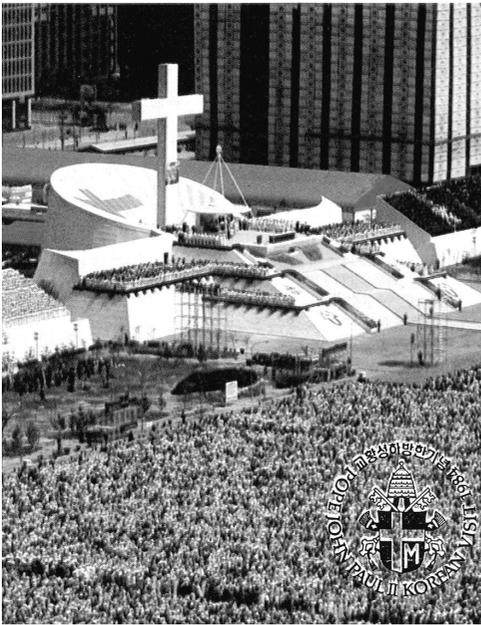
견진 성사로 신자들(세례받은 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제2편 p.475 #1285]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음이 분명한데 어째서 신자

들이 카톨릭교회의 종교 예식에 구속되고 싶어 하거나 또는 그럴 필요를 느껴야 할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 8:36)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 5:1)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 방한 기념으로 여의도 광장에 세워진 스탠드. 십자가 앞의 피라미드 지붕과 고대 이교도들의 양크 십자가 스탠드를 주목하기 바람. (고대 바빌론 종교의 상징물들임)

사람이 만든 카톨릭교회의 전통인 건진 성사가 구원에 필요할까요?

-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 카톨릭교회는 성경을 무시하고 “예!”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명령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 15:9)

죄의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죄는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 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제2편 p.544 #1493]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고해 성사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제2편 p.532 #1456]

이 성사를 고백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2편 p.522 #1424]



카톨릭주의는 신자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시 32:5)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2-3)

다음 구절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좌까지 직접 다가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히 10: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주신 정결한 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왕좌로 직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 **‘초대 교황’의 모범**

사도행전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위 초대 교황이라 일컬어지는 베드로에게 와서 성령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시몬더러 바로 그곳에서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종용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행 8:18-22 참조).

## 사제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교리의 두 번째 측면은 카톨릭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자에게 사죄권을 받은 신부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제2편 p.544 #1495]

여기서도 역시 카톨릭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 (막 2:7)

카톨릭주의는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교리 문답서 #1456 참조).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분의 중재자만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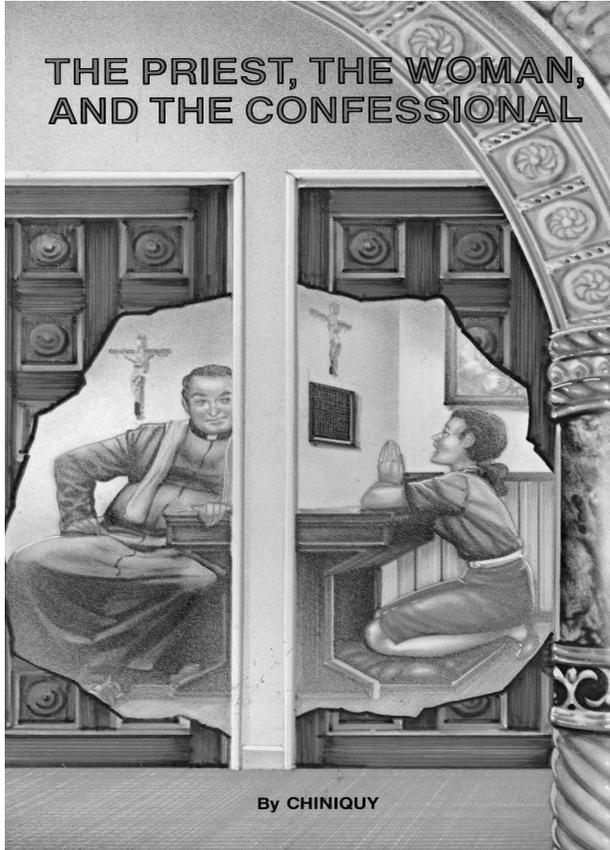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딤후 2:5)

다시 한 번 교리 문답서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 성사를 '은총을 잃은 난파 후 얻는 구원의 두 번째 구명대' 라고 소개한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참회론 4, 2 ; 트렌트 공의회:DS 1542)[제2편 p.530 #1446]

## 가중되는 속박의 굴레

교회의 계명에 따라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대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989조 ; DS 1683 ; 1708조)(제2편 p.533 #1457)



회심한 치니퀴 사제가 고해 성사와 관련된 죄악을 폭로한 책 (미국 Chick 출판사)

의무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교부들(Church Fathers)<sup>14)</sup>이 사람들을 카톨릭교회로 묶어 놓는 또 하나의 전통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톨릭교인들을 엮어매기 위해 카톨릭교회가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교리는, 만일 당신이 카톨릭교회를 떠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카톨릭교회를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험박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종교가 얼마나 단단히 여러분을 엮어매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종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14)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로서 이것 역시 카톨릭교회가 만들어 낸 유물이다. 제롬, 오리게네, 어거스틴 등 카톨릭교회의 교부들은 모두 이단 교리를 양산해 낸 자들이다.

## 결 론

고해 성사

수천만 명의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이 신부가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눈먼 채 고해소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인 카톨릭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사제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겠습니까?

오 주여, 내가 깊은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 130:1-4)

# 29

## 대사 : 면죄부

Indulgences

살아 있는 자들과 연옥에 있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죄는 대사(大赦) 즉 면죄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말합니다.

신자들은 대사(大赦)로써 자신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 즉 일시적인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편 p.545 #1498]

다음은 대사에 관한 교리 문답서의 정의입니다.

대사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적용한다. [제2편 p.539 #1471]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나오지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사 즉 면죄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선행에 대한 복잡한 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대사에 관한 모든 규정들 역시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점 또한 언급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 중 단

하나도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 죄의 종류?

교회의 이러한 교리(대사)와 관습을 이해하려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2편 p.539 #172]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의 결과는 동일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3)

그러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5)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는 소죄라고 생각한다 해도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로마 카톨릭교인들은 대사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 하셨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고전 15:3)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선행 즉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사람이 한번 은혜에 의해 구원받으면 선한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을 위한 필요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필요조건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행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카톨릭주의는 또한 대사(면죄부)가 이미 죽은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도들과 통공<sup>15)</sup>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하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제2편 p.541 #1479]

그러나 이것 역시 사람이 만든 전통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에 관한 어떠한 가르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뿐입니다.

---

15) 성도들의 통공 : 성인들은 살아 있을 때에 많은 공적을 쌓아서 하늘에 여분이 남아 있으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 빌면 그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믿는 카톨릭 교리

## 세 가지 주제

이 교리에서도 또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신성이 또 한 번 과소평가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주의는 일개 카톨릭교인의 선행을 통해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대사 즉 면죄부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에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카톨릭교회가 부과하는 선행을 실천하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카톨릭주의가 말하는 선행과 성경이 말씀하신 선행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성경적인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톨릭주의의 선행은 주로 교회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즉 미사, 묵주 기도, 카톨릭 기도문, 촛불 밝히기 등에서 맴돕니다.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을 교회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대사 즉 면죄부는 영적인 공갈 협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가령 신자들이 카톨릭교회에 충실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의 죽은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 결론

대사: 면죄부

이러한 선행 제도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관해 자신의 거룩한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어 놓으셨는지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딤후 3:5)

과연 카톨릭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도 될까요? 교리 문답서의 말을 들어 봅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회의 교도권 즉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만 주어졌다. [제1편 p.46 #100]

오직 교황과 카톨릭교회의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행 17:11)

다시 말해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막 12:24)

만일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질책하셨을까요? 어째서 카톨릭주의의 초대 '교황' 이라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벧후 1:20)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강하게 권유했을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 2:15)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요 5:39)

과연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경 말씀을 해석하실 것이며 또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 14:26)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 듣는 것만

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 16:13)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가르치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고전 2:12-13)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암기하도록 명하셨을까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 119:11)

내 아들이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네게 쌓아 두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또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들에 묶고 네 마음 판에 기록하라. (잠 7:1-3)

## 경고의 말씀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 줄 교회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므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요일 2:26-27)

어째서 카톨릭교회는 당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카톨릭주의에 계속해서 묶어 두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들은 혹시 당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서는 카톨릭주의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것을 발견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은 카톨릭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카톨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 줄 필요를 느끼면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카톨릭교회의 성경 해석권이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 누가 당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로마 카톨릭교회입니까?
-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영원을 어느 곳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이니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내 묵상거리이므로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므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시 119:97-100)

로마 카톨릭주의는 기도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 봅시다.

기도는 내적인 충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되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곧 기도하자면 먼저 기도하려는 원의가 있어야 한다. 성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살아 있는 전승인 성전(聖傳)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제4편 p.903 #2650]

위의 교리 문답서 인용문에서 우리는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진술을 발견합니다.

첫째,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도는 내적인 충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되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한 기도의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시 3:4)

오 주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 30:2)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시 120:1)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 62:8)

로마 카톨릭주의의 기도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쓰여 있는 단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이교도들이 하는 행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방법을 금하셨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마 6:7)

둘째,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살아 있는 전승인 성전(聖傳)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교리 문답서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카톨릭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교회가 있기 오래전에도 사람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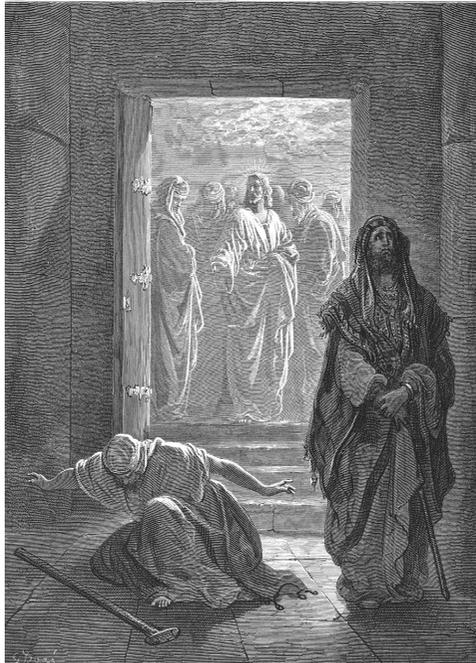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으므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으니 (창 20:17)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민 11:2)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왕하 6:18)

이러한 사람들은 카톨릭교회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눅 18:11-13)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시 50:15)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발생적인 감정의 표현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속박?

이러한 카톨릭주의의 교리가 신자들을 보다 더 카톨릭교회의 속박 안에 가두게 만든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 결론

카톨릭의 기도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 두 개의 주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카톨릭주의의 기도법을 정죄하고 카톨릭교회는 성경적인 기도법을 정죄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전통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 22:5)

카톨릭주의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선행 시리즈 중 또 다른 하나는 보속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 주지는 못한다 (트렌트 공의회 : DS 1712). 죄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값을 '보속' (penance)이라고 부른다. [제2편 p.534 #1459]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억의 카톨릭교인들은 이러한 선행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금도 이러한 보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러한 행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임을 밝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선행이 어떤 사람의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신뢰를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현물이 더 이상 필요

가 없느니라. (히 10:17-18)

하나님께서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죄들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일단 죄를 용서받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희생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리 문답서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 규정을 계속해서 떠들어댁니다.

고해 사제는 고해하는 사람에게 보속을 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속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제2편 p.534 #1460]



교리 문답서는 심지어 보속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선행들이 무엇인지도 정의해 놓았습니다.

보속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 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제2편 p.535 #146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선행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시 86:5)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여겨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갈 2:16)

바울은 만약 선행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여겨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21)

심지어 교리 문답서는 이러한 전통을 확대시켜 보속이 죽은 자들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大赦)와 보속도 권고한다. [제1편 p.390 #1032]

콘크리트 벽 위의 시멘트 덩어리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전통의 꼭대기 위에 전통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세 가지 질문

이러한 카톨릭주의의 교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질문을 유발합니다.

-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사람들을 카톨릭교회에 묶어 두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 어째서 카톨릭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하고 그분의 희생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카톨릭교인들은 짓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희생을 더 치러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할까요?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롬 3:28)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행위가 없어도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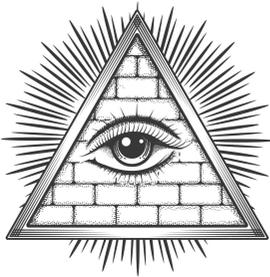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롬 4:4-5)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롬 3:28)

이번 장의 제목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제 우리는 문답서를 통해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복음 강해 21, 8.)[제1편 p.309 #795]



뉴에이지의 상징인 외눈

이것은 1994년에 발행된 「카톨릭교회의 교리 문답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교리 문답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시다면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교리는 현재 카톨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의 신비적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 주제에 관해 충분한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흥미 있는 연구거리가 되리라 봅니다.<sup>16)</sup>

16)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누구나 영성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유행한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을 서구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불교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소위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 부처가 된다는 것임. 불교나 천주교나 그 근원이 다 고대 바빌론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상을 지니고 있음.

##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이 주제 즉 거짓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할 때는 언제나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마 24: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마 24:24)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눅 21: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마 24:2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니므로(요일 5:7) 사실 이 교리는 모든 카톨릭교인들이 실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많은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사 45:22)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사 46:9)

그것을 내게 보여 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4:35)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설교했을 때 사실 그는 이러한 교리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베후 2:1)

## 극도의 무례함

본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카톨릭주의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탈취해서는 마리아, 교황, 성체 즉 빵 조각 등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번 장에 나오는 이 교리는 그야말로 극도로 무례한 것입니다.

이 비성경적인 교리는 모든 로마 카톨릭교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주의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권좌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의 여느 카톨릭교인보다 나을 것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계 5:11-14)

## 결론

천주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입니까?

친애하는 카톨릭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성경이 정죄하는 사상인 신비 종교 뉴에이지 운동의 주장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고전 8:6)

# 34

## 천주교인들이 다 틀릴 수 있을까요?

Could 850 Million Catholics be Wrong?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하나의 참된 교회로서 카톨릭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제2편 pp.467-468 #1257]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25% 혹은 6천만 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미 여러 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천주교인이므로 열 명 중 아홉 명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주의는 거의 십억 명이나 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십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틀릴 리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마 7:13-14)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 체제를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소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천만 명의 미국인이 ‘적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십억 명 인구가 ‘적

은 수'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소수의 무리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대다수는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잘 짜여져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종교 안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는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던 중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한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눅 13:23-2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마 9:37-38)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해 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결 론

천주교인들이 다 틀릴 수 있을까요?

본서 전체를 통해서 보셨듯이 카톨릭교회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명의 카톨릭 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쳐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마 7:24-26)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실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실까요? 만약 당신이 종교적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태복음 7장 24-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다수의 무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주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 7:22-23)

어떻게 이토록 많은 카톨릭교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도 그분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눅 6:46)

물론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무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울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시 19:7-10)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 35

## 화해

###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카톨릭 신자는 동시에 카톨릭교회와도 화해하게 된다고 교리 문답서는 역설합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교회와도 화해한다. [제2편 p.535 #1462]

이 교리에서 또다시 성경과 교리 문답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 1:20)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후 5:18)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기도했으며 결코 그들이 카톨릭교회와 화해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후 5:20)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들을 한 몸으

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6)

## 성경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예시되었고 신약 성경 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롬 5:18)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카톨릭교회와 화해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교리 문답서는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만약 카톨릭교회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없게 된다고 공갈 협박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교리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낼 권위를 부여 받았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을 카톨릭교회에 묶어 두기 위해 카톨릭교회가 고안해 낸 또 하나의 인위적인 교리가 아닌가요? 이 교리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 누구와 화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과의 화해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카톨릭교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카톨릭교회와 화해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서 의미하신 바가 한 치의 오류 없이 정확하다면 신성한 카톨릭 신자인 당신은 지금 영원토록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깊이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우주의 하나님과 이미 화해했다면 그 사람이 카톨릭교회와 화해했는지의 여부가 정말로 문제가 될까요?
2. 만일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교회와의 화해 여부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중대한 정보를 성경 말씀에서 빠뜨리실 수 있었을까요?
3. 어째서 카톨릭주의의 교리는 또다시 성경적인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부정할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카톨릭교회와 화해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롬 5:10)

사제들의 독신 생활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인가요, 아니면 또 하나의 사람의 전통인가요?

종신 부제들을 제외하고 라틴 교회의 서품받은 모든 봉사 직무자는 원칙적으로 독신으로 살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독신 생활을 계속할 의지를 가진 남성 신자들 가운데서 선발한다. 독신 생활은 교회의 봉사 직무자가 봉사하도록 축성(祝聖)된 새로운 삶의 표징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독신 생활은 하느님 나라를 찬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사제직무령 16항) [제2편 p.573 #1579]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히 13:4)

이 말씀은 사제나 수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인 감독(bishop) 즉 지역 교회 목사의 자격을 나열할 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딤후 3:2)

한편 하나님께서는 집사(deacon)의 경우에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딤후 3:12)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창 2:18)

하나님께서서는 결혼을 승인하셨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강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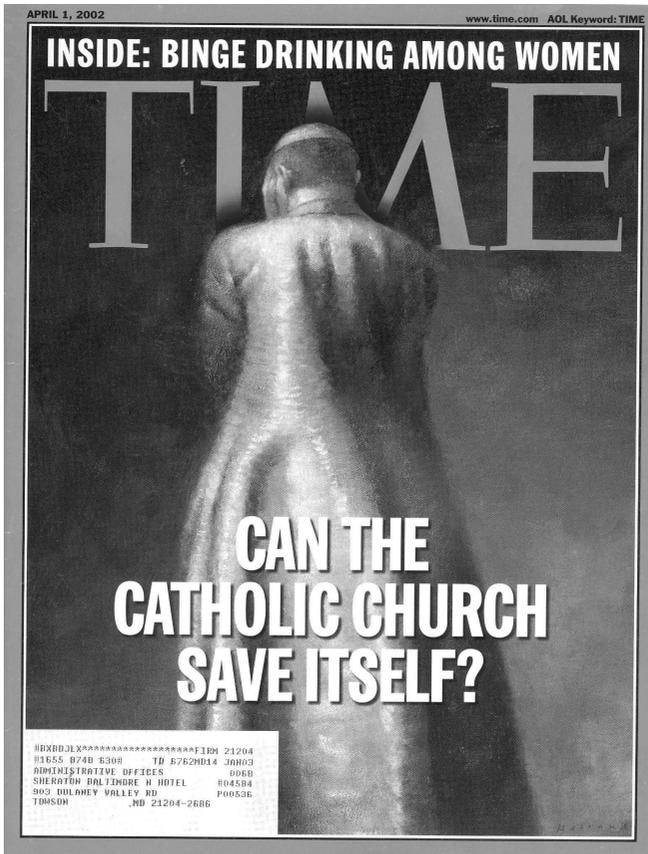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 그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라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딤후 4:1-3)

독신 생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며 위선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사제들과 수녀들이 실제로는 마귀들의 강력한 계략에 희생된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제들과 수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

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진리를 자신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그저 읽어 보기만 하면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들의 성 추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바티칸  
(2002년 4월 1일 타임지)

## 결혼한 교황?

천주교에서 '첫 번째 교황' 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고하매 (막 1:30)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다른 아닌 사도 베드로입니다(마 4:18; 10:2 참조).

## 이러한 교리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다른 모든 교리들처럼 이 교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리를 지옥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카톨릭 주의를 독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찬란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제들과 수녀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년 소요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 결 론



독신 생활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셨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혹은 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믿을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혹시 당신이 사제나 수녀라면 당신이 감수하는 희생이 실제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샘이 복되게 하고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잠 5:18)

우리가 살펴볼 최종적인 교리는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행하는 마지막 종교 예식인 노자<sup>17)</sup>성사(Last Rites)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Passover) 성사로서 성체는 언제나 지상 순례 길의 마지막 성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노자' (路資) 성사가 되어야 한다. [제2편 p.552 #1517]

이 종교 예식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병자 성사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특히 생명이 떠나려는 순간에 처한 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트렌트 공의회:DS 1698).  
 ... 병자의 도유(anointing, 기름을 바르는 것)는 세례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 간의 일치를 완성시킨다. [제2편 p.554 #1523]

17) 이들이 말하는 '노자' 란 샤머니즘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길에서 쓰도록 '노잣돈'을 준다고 할 때의 '노자' 와 동일한 개념임.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 간의 일치를 완성시킨다.”는 믿음은 성경에는 없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 가중되는 속박의 굴레

이 종교 예식은 오직 사제나 다른 카톨릭 지도자가 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자들이 임종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도 그들을 카톨릭 종교의 속박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사제들(주교의 신부)만이 병자 성사를 거행한다. (트렌트 공의회 DS 1697 ; 1719 ; 교회법 제1003조 ; 동방교회법 제739조 1항)[제2편 p.551 #1516]

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또한 노자 성사가 ‘영생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유(기름 바름) 외에도 노자로 성체를 준다.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에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며 부활의 힘이다. [제2편 pp.554-555 #1524]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종교 예식이 영생의 씨앗도, 부활의 힘도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거나 보증하시지 않은 인위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무익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사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세속적인 선행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8-9)

여기 이러한 종교 예식과 관련된 인위적인 규정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증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급격히 노쇠해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2편 p.551 #1515]

규정 위에 또 규정을 추가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들 중 아무것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 결론

마지막 의례 : 노자 성사

이 교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종교 예식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의 인물들 중 단 한 사람도 노자 성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현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딤후 4:6-7)

- 성경의 인물들 중 단 한 사람도 노자 성사를 집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사람이 만든 예식과 종교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 15:9)

1994년에 발행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 대한 연구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톨릭주의의 교리와 성경 사이에 여러 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양측 모두는 철저하게 상반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과 카톨릭주의의 전통이 영혼 구원에 동등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리 문답서의 주장은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교리 문답서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그들의 교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따라야만 하는 복잡하고도 때론 혼란스러운 규정들의 끝없는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고 일관성이 있으며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여기 그 예가 있습니다.

##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하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이것은 이해하기에 매우 쉬운 것입니다. 이제 교리 문답서가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여기 정확히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이어받은 권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안배에 따라 모든 성인들의 영혼과(...) 다른 모든 죽은 신자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들로써 그들이 죽을 때 더 이상 정화할 것이 없었거나(...) 나아가 정화해야 할 것이 과거에 있었거나 정화할 것을 지닌 채 죽어도 죽은 후에 온전히 정화된 영혼들도(...) 그들의 육체 안에서 부활하기 전에 그리고 공심판 전에, 그리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하늘나라, 하늘의 낙원에서 거룩한 천사의 모임에 받아들여졌으며,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받아들여질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이후로 이 영혼들은 어떠한 창조물도 거치지 않고 직복직관의 신적 본질을 얼굴을 맞대고 보았고, 보고 있다. (베네딕도 12세:DS 1002항) [제1편 pp.386-387 #1023]

도대체 누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토록 단순하고 쉬운 성경적 개념을 이리도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정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도록 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고전 14:33)

만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카톨릭 종교 규정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카톨릭교회에 대해 당신에게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 결 론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리

문답서와 카톨릭주의의 교리가 당신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 71:1)

## 초대장

An Invitation

이 책은 결코 카톨릭 신자들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저는 둘 다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적인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주의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체제는 모든 면에서 성경 말씀을 침해하며 사람들의 전통으로 구성된 종교입니다.

둘째, 저와 제 아내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으로써 카톨릭교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발견했던 자유함과 평안함을 여러분도 경험하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교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와 첫 성찬과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매주 종교 교리반에 참석했고 일요일마다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정규적으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열여덟 살 때 저는 가정과 카톨릭교회를 떠나서 미 해군에 입대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한 명이 카톨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약간 망설여졌지만 저는 딱 한 번만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배가 저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정말이지 곧바로 저를 향해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사정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강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지만 결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날 아침 예배를 끝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선포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당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채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두근거림이 멎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 3:20)

얼마 후에 그 친구는 다음 번 예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서 또다시 저의 가슴은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성경을 펼쳐 가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보여 주면서 저에게 성경 구절들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지만 천국에 가기 원한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저를 짓누르던 수천 톤이나 되는 무거운 짐이 저의 어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즉시 저는 제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행해 오던 선행은 결코 그 몇 분 동안에 일어났던 기적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20년 이상이 흘렀고 비록 그 동안 제가 여러 번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결코 저를 실망시키거나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때보다 더욱더 저에게 실제적이고 존귀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와도 그분을 맞바꾸거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예수님과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톨릭 신자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에 대해서 들었

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 8:32)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당신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고 계  
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롬 2:4)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  
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고후 6:2)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를 숙이고 당  
신의 입술을 벌려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  
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180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요구하는 거짓 종교를 신뢰했던 것을 회개합니  
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충분한 대  
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카톨릭주의의 가르침을 던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후로 제 삶에 있어서 유일한 최종 권위는  
카톨릭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  
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당신이 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  
신이 방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음을 약속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2)

친구여, 이 책은 당신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부디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약 1:17)

## 하나님의 청원

God's Plea

저는 조금 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중의 하나는 카톨릭교회로부터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4)

많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여전히 카톨릭교회에 남아 있기를 원하신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거짓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 5:1)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

의와 무슨 사귀를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고후 6:14)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살후 3:14)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가 카톨릭교회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신 27:10)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 일이 잘되리이다, 하니라. (렘 42:6)

**순종이 중요합니까, 희생이 중요합니까?**

가끔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희생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보다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어째서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를 원치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그분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카톨릭교회를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1.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카톨릭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2.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카톨릭교회 안에 두고 있으므로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 사람이 과연 정말로 개종한 것일까요?**

어떤 젊은 카톨릭 신자와 대화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간청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카톨릭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춤하더니 대뜸 “오, 저는 결단코 카톨릭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왜 안 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카톨릭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것과 그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간에 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카톨릭교회에 두었습니다.

그 젊은이처럼 오늘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전통을 신뢰한 자들은 심판 날에 몹시 실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렘 17:5)

만약 당신이 카톨릭주의로부터 나오기를 거부하는 카톨릭 신자라면 최선의 경우에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속은 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엡 5:11)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체제로부터 속히 떠나야만 합니다.

##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카톨릭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카톨릭교회는 구원이 오직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그들의 신도들에게 주입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종교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죽을죄에 해당된다고 배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딤후 1:7)

당신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거짓된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얻으려면 카톨릭교회와 관련된 것들 — 예를 들어 성상들, 목주, 교리 문답서, 기도서 등과 같은 것들 — 을 당신의 집에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전 10:14)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갈 5:19-21 참조). 이러한 우상 숭배 도구들을 처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태우는 것입니다(행 19:19 참조).

##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카톨릭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는 그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분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카톨릭교회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분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 개종한 사제

몇 년 전에 자신의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한 카톨릭 사제가 예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카톨릭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매 주일 아침이면 자신의 옛 교회로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면 미사가 끝나고 전에 그의 교구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오다가 그를 알아보고는 하나같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신부님, 저희는 신부님이 교회를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 사실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제가 모든 것을 설명드리지요.”

그런 방법으로 그는 전에 자기 교구 교인이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 결 론

자,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할 것인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고후 6:17)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 1:4-5)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 1:2)

## 자유인가 속박인가?

Liberty or Bondage?

하나의 주제가 이 책의 각 장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주의와 참된 기독교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 카톨릭주의는 사람들을 속박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십니다.

당신은 카톨릭주의의 모든 교리들이 신자들을 카톨릭교회의 속박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죄들을 정말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참된 교리를 가진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뒤 노자 성사를 받는 임종의 순간까지 카톨릭교회에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롬 8:21)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롬 8:15)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속박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갈 2:4)

속지 마십시오! 종교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벧후 2:19)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 5:1)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유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오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갈 5:1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종교의 속박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고후 3:17)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므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시 119:45)

### **자유를 누리십시오!**

한때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속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젊은 시절 내내 저는 카톨릭주의의 종교 규정과 규칙들에 대해 교육받았고 그것들에 복종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느꼈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유였습니다. 속박의 사슬들이 끊어졌습니다. 저를 지배하던 속박의 세력이 제거되고 마침내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 **당신이 경험하게 될 일들**

당신도 카톨릭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저와 똑같은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히 2:15)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 4:3-5)

##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술한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갈 4:16)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서 당신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틀림없이 제가 카톨릭 신자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저는 이 책에서 카톨릭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불 호수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종교로부터 당신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는 당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원수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당신의 친구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 당신의 진정한 원수

그렇지만 분명히 당신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당신을 증오하기에 당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올부짚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벘전 5:8)

당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낸 후에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적인 장식들로 꾸밈니다.

그다음에, 그는 그 종교 체제의 신도들이 지켜야만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체계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규정들을 준수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의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증오하면서도 그분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요 14:6). 따라서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계략은 수 세기에 걸쳐서 큰 효력을 발휘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는 속임수에 뛰어난 존재입니다(계 12:9).

마귀가 더 이상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가 바로 당신의 실제 원수이며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로 돌이키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 1 종교 개혁을 뒤엎은 사건

이 글은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Harvest House Publishers 1994)의 서문이다.

1994년 3월 29일, 지난 500년간의 교회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바로 이날,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인들이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3rd Millennium*, 이하 「ECT 문서」)라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에 조인했다. 사실상 이 문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뒤엎어 버렸고 의심의 여지없이 가까운 장래에 전 기독교계를 통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같이 놀라운 일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진행된 치밀한 계획과 협상의 결과이다. 이 과정 속에서 바티칸은 항상 진행되는 일을 감시했고 그 결과를 승인했다. 1994년 3월 30일, 미국 전역에 여러 신문들을 통해 보도된 「뉴욕 타임즈」지의 공개 기사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낙태와 포르노그래피(음란성 제작물)에 대항하는 운동을 통해 함께 노력했으며 이제 저명한 카톨릭 및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자기 양 떼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약 즉 최종적으로 서로를 크리스천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 성명서에서 로버트슨(Pat Robertson)과 콜슨(Charles Colson, 처음 이 작업을 시도한 사람들 중 하나임)은 오늘날 보수적인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

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크고 정치적으로 활동력이 강한 종교 그룹들을 묶어 주는 믿음의 줄을 강건히 하자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들은 카톨릭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에게 상대방 진영의 양들을 적극적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네바 칼리지의 학장이며 미국 복음주의자 연합회의 회장을 지냈던 화이트(John White)는 이 선언문이 수 세기에 걸친 미국 내 종교계에서의 불신 끝에 이루어진 ‘승리의 순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 다른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미국 내 최대 프로테스탄트 교파인 남침례회의 가정사역부와 크리스천 라이프 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했음), CCC의 창설자 브라이트(Bill Bright), 위튼 대학의 놀(Mark Knoll), 기네스(Os Guinness), 하나님의 성회의 미란다(Jesse Miranda), 풀러 신학교 학장 모우(Richard Mouw),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팩커(J. I. Packer), 솔로스버그(Herbert Schlossberg) 등이 있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남캘리포니아 의장인 시몬즈(Robert Simonds)는 이 선언에 대해 갈채를 보냈으며 이번 사건이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간의 협력 증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 몇몇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 선언에 서명을 했고 다른 이들은 이 같은 시도가 루터의 ‘종교 개혁’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카톨릭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을 연합’ 시키려는 이 담대한 시도는 그 어떤 사건이나 시도보다도 더 복음주의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문서의 서명자들이 예상했던 바이다.

24쪽 분량의 「ECT 문서」는 어떤 타협의 여지없이 카톨릭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침례의 중요성 및 성경의 권위 등과 같은 몇몇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

장 중요한 차이점 즉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이런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부인되고 있다. 이처럼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이번에 이루어진 동의의 핵심부에 깔려 있다.

이번의 역사적 선언 뒤에 있는 중요한 요소는 저명한 복음주의자들이 예전에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것 즉 적극적으로 카톨릭 교회에 참석하면 크리스천이 된다는 생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참으로 옳다면 종교 개혁은 비극적인 실수이다. 종교 개혁 이전의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주의를 거짓 복음으로 폭로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혁자들이 옳았다면 이번에 카톨릭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연합은 전체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에 가장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가장 교묘한 사건이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이 같은 시도로 인한 결과들은 엄청난 것이다. 한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번의 연합 선언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문서는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되어 온 모든 종교 통합 논의들을 변경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새 날을 의미하며 사실상 문화적 사역과 근본적 신학 사역에서 로마 카톨릭교인들은 복음주의자들만큼이나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다.<sup>1)</sup>

한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신학적 차이점들은 너무나 큰 것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차이점들

---

1) Moody, 1994년 5월호, p.62.

에 대해 타협하기보다는 순교하는 길을 택했으며 그들을 죽인 카톨릭교인들 역시 이 같은 차이점들의 중요성에 대해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들이 언제, 어떻게 해소되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카톨릭주의의 복음이 이제는 성경적이라고 선포하게 되었는가? 카톨릭의 복음은 개혁자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아닌가? 또한 그 복음은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해결될 수 없는 큰 차이점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위해 그리고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큰 연합을 이루기 위해 희석되어 버렸단 말인가?

복음주의자들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크리스천이라는 주장을 비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카톨릭교회에 다니는 천주교인들은 모두 크리스천이며 따라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ECT 문서」는 카톨릭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모두 사도 신경을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나 다른 신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전 15:1-4; 롬 1:16)는 분명한 이유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물몬교도들도 사도 신경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 크리스천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신경을 외우는 것이 카톨릭교인이나 혹은 프로테스탄트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않는다. 더욱이 카톨릭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 죽었다는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의 이해

하는 바와 너무나 다르다.

한때 로마 카톨릭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와 대부분의 유럽에서 국가의 공식 종교였고 따라서 그곳에서는 다른 종교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정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 천주교는 이제 다른 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카톨릭교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번에 발표된 「ECT 문서」의 서명자들이 동의한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카톨릭교회가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번에 미국에서 서명된 문서와 같은 것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한 뉴스 보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브라질 내에서 복음주의 이단 종파(Evangelical Sects)가 놀랍게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 매우 놀란 채 로마 카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카톨릭 양 떼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프로테스탄트를 향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제31차 브라질 주교 총회에서 본(Bohn) 주교는 복음주의자들이 자국 내 바티칸의 영향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포고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카톨릭 교회의 조직은 육중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누구든지 우리 밑으로 격파할 것이다.'<sup>2)</sup>

본 주교의 말대로라면 브라질 내 13개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교파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사력을 다한 거룩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조약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브라질에서 행하는 모든 복음 전도 노력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

2) Charisma, 1994년 5월호

그 대신 카톨릭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한 모든 박해를 멈추는데 동의할 것이다. 본 주교는 자기의 제안을 최후통첩이라 부르며 거기에 대화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주교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는 것이 여전히 카톨릭의 공식 정책임을 인정한다.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프로테스탄트 박해의 진상은 카톨릭교인들과 프로테스탄트 모두를 놀라게 만들 것이다. 브라질 주교 회의에서의 관심사는 복음의 진리나 영혼 구원이 아니고 바티칸의 영향을 유지하는 것과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안에 잡아두려는 것뿐이었다는 사실 역시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본 주교가 브라질 내에서 위협을 통해 요구하는 그 협정이 미국 내에서 콜슨(Colson), 팩커(Packer), 브라이트(Bright), 로버트슨(Robertso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본의 위협이 미국 내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콜슨의 인터뷰 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와 「ECT 문서」에 서명한 다른 복음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들로 구성된 라틴 아메리카에서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들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로 괴로워하게 되었다.<sup>3)</sup>

복음주의자들이 휴전에 서명을 했지만 로마는 여전히 프로테스탄트를 개종시켜 카톨릭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마의 ‘2000 복음화’라는 사업을 위해 1994년도에만 미국 전역에 걸쳐 ‘바울 추종자 복음 선포 훈련 기관’ (워싱턴 D.C. 소재, 1994년 6월 26-30일, 7월 24-28일), ‘복음 전도를 위한 카톨

---

3) New York Times, 1994년 3월 30일, p.A8

릭 학교들의 기관장 협회'(역시 워싱턴 D.C. 소재, 1994년 8월 3-6 일) 등의 그룹을 포함하는 여섯 번의 카톨릭 복음 전도 훈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들은 그들이 '카톨릭 복음 전도'라고 명명한 그 사역의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콜슨은 1994년 5월 11-14일에 미시간주 입실란티에서 열렸던 '요한 바오로 2세와 신복음 전도 비전을 수행하며'라는 회의에서 특별 강사로 발언을 했다. 그는 바티칸을 위해 '2000 복음화'를 이끌고 가는 톰 포레스트(Tom Forrest) 사제와 같은 카톨릭 지도자들과 함께 연설을 했다.<sup>4)</sup>

이번의 「ECT 문서」에 서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 카톨릭교인들과 함께하려는 영적 동반자상을 꿈꾸었을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음화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카톨릭교인들에게는 복음화가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ECT 문서」는 이 같은 점을 무시했다. 톰 포레스트 사제가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의 모임에서 '카톨릭의 복음화'에 대해 설명한 것을 들어 보자.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안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풍성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화'라는 것은 그 개종자가 카톨릭교회 내로 인도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자 이제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을 들어 보자.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의 복음화에 관하여'라 불리는 이 문서를 집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교황은 다음과

---

4) New Evangelization 2000, Issue No.23, 1994

같이 말했다. 새로 복음화된 어떤 사람의 결심은 결코 추상적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즉 '아, 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발언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우리는 카톨릭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구원 성사(聖事)를 그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나는 다음의 말을 좋아하며 따라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하려 한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구원 성사' 이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 그 자체를 말하며 만일 그것이 교회 그 자체를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화해야 한다.

당신들은 결코 사람들보고 크리스천이 되라고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들을 카톨릭교인이 되도록 초청해야만 한다. 왜 이것이 그처럼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일곱 성사가 있는데 카톨릭교회만이 이 모두를 갖고 있다(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우리에게는 성당 내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그리스도는 매번 미사 때마다 제물로 서 산 채로 제단 위에 존재하며 우리는 화체(예수의 몸으로 변한 빵 조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카톨릭교인들로서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요 낙원의 여왕으로서 자신이 영광 중에 우리를 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카톨릭교인들로서 우리에게는 교황 제도가 있어서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로부터 지금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반석이 있다.

카톨릭교인들로서 우리에게는 연옥이 있는데 사실 나는 이것을 무척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는 연옥 없이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연옥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다.

따라서 카톨릭교인들로서 우리의 임무는 2000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사람들을 복음화시켜 카톨릭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고 카톨릭 역사의 셋째 천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sup>5)</sup>

---

5) Roman Catholic Double talk at Indianapolis '90, Foundation, 1990년 7-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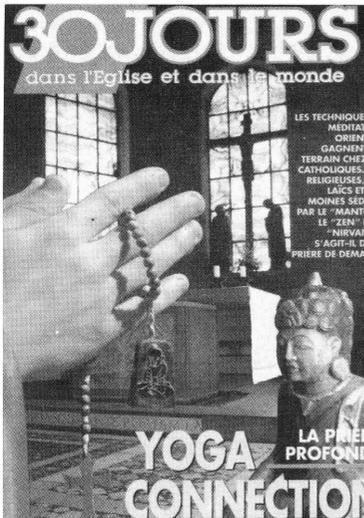
이같이 명백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복음화’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카톨릭교인들과 함께 공동 복음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카톨릭교인에게 구원이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아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매우 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 사람과 카톨릭교회와의 관계에 의존한다. 즉 그들의 구원은 성례, 고해 성사, 선행, 이 땅에 있는 혹은 연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면죄부, 끊임없는 미사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목주 기도 등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카톨릭주의의 ‘복음화’는 행위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 20:24)과 전적으로 상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카톨릭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의 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카톨릭 크리스천들은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게 되며 그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수의 무리들은 카톨릭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카톨릭교회를 떠난다.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카톨릭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어떠한 야만 하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런 큰 혼동들이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의 문제들을 여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카톨릭/프로테스탄트의 전체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즉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톨릭교인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의 대부분은 정확한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이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밝히 드러내고 혼동을 없애 주리라고 믿는다.

## 루터교, 카톨릭과 공동 성명서 발표

1998년 6월 미국의 '루터교 세계 연합체' (Lutheran World Federation)와 로마 카톨릭교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칭의(Justification)의 문제에 있어서 두 교회가 서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4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루터교가 '믿음 + 행위'의 칭의관을 가진 천주교를 인정함으로써 이제 천주교의 '종교 통합' 과정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그 여파가 속속 다른 자유주의 교단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다. 말세에 '단일 세계 종교'가 서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 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이 일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다만 순진한 이들이 이와 같은 정치 게임에 빨려 들어가 이런 무리들과 연합하여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한쪽에는 십자가 그리고 다른 쪽에는 부처를 달고 있는 천주교의 목주. 부처상까지 상당 안에 들여놓고 종교 통합을 꿈꾸는 바티칸 (천주교에서 6개 국어로 발행하는 '30일' 잡지 표지, 1989년 8/9월호)

## 2 빌리 그래함, 교황 그리고 성경

이 글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오스스에 있는 'Fundamental Evangelistic Association'이라는 복음주의 단체의 레이놀즈(M. H. Reynolds, Jr.)가 천주교와 연합하여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는 빌리 그래함이라는 인물에 대해 「Billy Graham, the Pope, and the Bible」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번역한 것이며 끝부분에 있는 최근 동향은 역자가 추가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을 들라면 프로테스탄트 빌리 그래함 박사와 로마 천주교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참으로 매력적인 인품의 소유자들이다. 빌리 그래함은 지난 35년 동안 선교 부흥 집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집회 그리고 출판물 등을 사용하여 미국 내 선교와 국제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참으로 그가 세계적 선교 활동의 제1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새삼 논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교적 매우 짧은 기간에 — 그는 1978년에 교황이 되었음 — 온 세상에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이 되던 때부터 즉시 유명해졌고 그 이후로 수천만 카톨릭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이 된 후 역대 어느 교황보다도 더 많이 여행을 했으며 그의 행적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보도되었다. 그 결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카톨릭교인이 아닌 수천만의 청취자와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

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의 겸손한 태도와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나는 빌리 그래함이나 로마 교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과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함 박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새삼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교황의 인품은 많은 이들에게 큰 매력을 준다. 1979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보도진으로부터 많은 취재 공세를 받았고 그의 행보는 연일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에 대한 대중 매체의 보도는 아마도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 보도 이후로 가장 열렬했던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시사 주간지 「타임」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모든 종교인들은 거리에 서서 발꿈치를 치켜 올러가며 그를 보기 원했으며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그를 인정하는 환성을 질렀다.

한편 「뉴스위크」지는 이러한 찬사에 덧붙여서 “그가 단순히 나 타난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최면술에 걸린 상태에 빠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타임」지는 “세상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 중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보다 더 많은 갈채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그는 모든 계절과 모든 형편과 모든 신앙을 지탱하는 교회의 겸손한 슈퍼스타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사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카리스마적 자질을 소유한 인물이

다. 그의 품위 있는 인격, 상냥한 웃음 또 그의 겸손함, 때에 맞게 적절한 말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함께 작용하여 그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임신부의 낙태를 반대하고 이혼을 반대하고 안락사를 반대하고 또 동성연애를 반대한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대목들이다. 반면에 사형 집행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이중적인 견해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다.

눈에 나타난 이런 외적인 것은 접어 두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로마 카톨릭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일과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가?

“로마 교회가 1962년부터 1965년까지의 ‘제2 바티칸 공회’를 개최하여 많은 것을 협의한 결과 이제 로마 카톨릭교회도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지도 아래 천주교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태도에 있어서 표면적 변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기본 교리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증명하는 사실들은 허다하게 많다.

이제 로마 카톨릭교회는 예전처럼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자라 부르지 않고 대신에 ‘갈라져 나간 형제들’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주의의 복음은 여전히 거짓 복음이며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

어 일곱 가지 성사 —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배 — 와 고백, 미사, 보속, 기도 예식, 유물 숭배, 메달 수여, 면죄부와 연옥,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중재자 역할, 신부 제도, 성모 마리아 숭배, 죽은 성인 숭배 등은 모두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로마 교황은 시카고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그리스도와 합체(合體)가 된다.

또한 워싱턴 광장에서 미사 예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목주 기도를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며 오늘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마리아의 중재 역할을 통해 언젠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충만함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참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하신 거짓 복음이다(갈 1:6-9). 그에게 아무 리 큰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황과 카톨릭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으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들은 단호하게 이 같은 거짓 복음을 거절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빌리 그래함 박사는 지난 30년 이상 온 세상의 수천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왔다. 그 역시 카리스마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나도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함 박사보다 더 친근감을 주거나 그 설교가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다. 많은 사람이 그래함의 세계적인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반갑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 그가 복음 설

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도와주었다. 소박한 설교에서 그는 반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보수적인 복음 성가만을 불렀으며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초청하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포근한 느낌을 주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래함은 1947년에 그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행된 부흥 집회에서야 비로소 「Hearst」라는 신문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부흥 집회 소식을 듣고 미국의 큰 도시마다 그의 부흥 집회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 그래함의 부흥 집회 후원자에 대하여 지역 교회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 그래함은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집단은 절대로 집회 후원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의 집회에 모인 군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교회가 후원자가 되었고 마침내 그래함 박사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든지 큰 교단의 지원이 없으면 집회를 하려 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자유주의 교회가 부흥 집회나 주최 위원회에 참가하여 경비를 보조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인도를 받게 되었다.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빌리 그래함은 공산주의와 카톨릭교회 그리고 종교 통합주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서슴없이 지적했고 이 같은 것들을 경고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공산주의와 카톨릭교회와 종교 통합주의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매우 쌀쌀한 어조로 “적그리스도를 WCC의 회장으로 선택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 회의에서 기자 회견시 기자가 세계 교회 협의회와의 관계를 묻자 그는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그 단체와 매우 친근한 관계라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1983년 그레함 박사는 WCC 사무국장 포터(Philip Potter) 박사에게 전보를 보내 일정이 겹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WCC 6차 총회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레함 박사가 부당한 교리를 내세우는 미국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CC)에 대해서도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NCC 총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그레함 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게 된 것도 이미 공개된 사실이며 이 또한 적지 않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이 일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고 아직도 공산주의의 음모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레함 박사는 전도 활동 초기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사탄이 운영하는 중개 매체가 되어 거짓말을 믿으려 하는 많은 이들을 속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수천만 명이 그 거짓 종교인 공산주의를 환영하고 있다.

이때만 해도 빌리 그레함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공산 국가인 헝가리를 닷새 동안 방문했을 때 그

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이고 공산주의는 사탄의 역사로 믿었던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이후로 그래함은 계속해서 공산주의 편을 드는 발언을 했고 공산주의자들은 재빨리 그의 발언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 공산주의 선전에 이용했다. 또한 그래함은 공산주의자들이 돈을 대고 후원하여 1982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평화 회의'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의 최고 지도자로서 연설을 했고, 구소련 공산당은 곧바로 그의 연설을 '철의 장막 뒤에서 종교를 학대하는 도구'로서 이용했으며 공산주의의 종교 학대 행위를 숨기는 데 이용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러시아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발언을 인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다. 복음 전도자로서 그래함이 공산주의에 대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적이 되며 성경을 반대하고 교회와 신자들을 학대하는 이 공산주의 조직이 온 세상을 정복하기로 맹세한 사실을 경고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빌리 그래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행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위험한 일은 그가 로마 카톨릭주의와 타협을 하고 더 이상 그 체제에 대항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란 공개적 무신론주의로 어느 면에서는 그 폭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종교 통합주의는 유신론주의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다 포함할 정도로 그 폭이 넓다.

한편 카톨릭주의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 탄생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분의 몸의 부활 등의 교리를 스스로 믿고 가르친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져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주의의 역사와 지금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며 거짓 복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같은 거짓 복음은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고 아직도 그들을 암흑 속에 쇠사슬로 묶어 두고 있다.

빌리 그레함의 친카톨릭 성향 및 태도는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처음에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신도들에게 빌리 그레함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의 카톨릭에 대한 태도가 완화되자 카톨릭교회는 빌리 그레함 집회에 대한 참가 금지를 해소했다. 그 후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은 빌리 그레함의 부흥 집회를 인정했고 특히 카톨릭교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결심할 때 빌리 그레함이 각자가 속한 교회 즉 카톨릭교회에 돌아가 거기 머무르라고 말하자 더욱더 그를 환영했다.

1972년 빌리 그레함 박사는 종교 통합 활동에 크게 공헌한 것과 진실되고 권위 있는 복음 전도를 한 것을 인정받아 '카톨릭 국제 프란시스상'을 받게 되었다. 또 같은 해에 로마에 있는 교황청 성서학교 원장인 둘레아는 빌리 그레함의 사역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레함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만을 설교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는 교리 문제에는 뛰어들지 않는다. 또 그레함은 카톨릭교회의 성례식이나 카톨릭교회 자체에 대해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카톨릭교회에게

손실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래함은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하여 설교를 할 뿐이지 프로테스탄트의 복음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물론 암암리에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자신의 설교를 하며 예를 들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라 말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께 참견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 그의 설교 내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카톨릭교인들은 그래함의 설교에서 카톨릭교회의 가르치는 권위나, 교황 혹은 성직자 체계의 권위를 알보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으며 미사나 성례 등 카톨릭 의식을 반대하는 말을 전혀 들을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또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할 것만을 가르치므로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어느 카톨릭교인이라도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빌리 그래함의 설교에서 찾아 볼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말할 것이며 노름과 음주와 담배 피우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카톨릭교인의 신앙을 반대하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1983년에 이르러 빌리 그래함은 복음 집회 때 회심한 사람들이 적은 ‘결신(潔身) 카드’를 카톨릭교회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올랜도에서 열린 플로리다 집회에서는 150명의 카톨릭교인들을 그 지방에서 모집하여 훈련하고 집회에서 결신(潔身)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였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간되는 「The Florida Catholic」 잡지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카톨릭교인들이 빌리 그래함의 선교 팀 일원인 마샬에 의해 특별 교육을 받았고 마샬은 빌리 그래함의 ‘성경 공부 소책자’를 사용하여 결신한 자들을 돌보아 주도록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마샬은 “그 소책자의 공부 내용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것이므로 어떠한 교회의 신학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 후에 나타난 보도에 의하면 650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그 집회에서 결심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는 빌리 그래함

의 부흥 집회에 여러 수준의 카톨릭교인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다.

빌리 그레함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타협자로 알려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대적으로 믿고 있는 세 가지 즉 공산주의, 카톨릭주의 그리고 종교 통합주의가 더 이상 기독교의 적이 아니고 친구라는 것을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었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신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 빌리 그레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이 세 가지 적을 친구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제 그것들은 '마귀의 전령들'로 보이지 않고 주 예수님의 '빛의 천사'로 보이게 되었다.

1987년 9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캐나다의 중요 도시를 방문하는 여정의 일부로서 캐나다의 밴쿠버로 여행을 하려 했고 빌리 그레함은 바로 그 도시에서 10월에 부흥 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밴쿠버에서는 적어도 250,000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야외 미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방탄 장치를 한 교황의 전용차를 타고 교황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몰려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로마 카톨릭 주교 카르니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교황은 종교 통합 운동과 교회 일치를 호소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고 "일치에 대한 소망이 이번 행사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참석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빌리 그레함이 밴쿠버에 도착하면 그 군중들의 수는 적을지 몰라도 수십 개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들과 여러 교회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감히 카톨릭교회와 종교 통합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없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빌리 그레함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극히 존경하고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밴쿠버에 교황이 지나간 후에 빌리 그레함이 곧바로 도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로마 교회의 거짓 교리를 경고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지금까지 늘 해 왔듯이, 그는 교황을 찬양할 것이며 자신과 교황 사이에 신학적 입장에 차이가 없다는 인상을 질게 줄 것이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기 바로 전에 빌리 그레함은 교황이 미국에 오으로써 “우리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적 새로운 부흥의 물결’ 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아주 짧은 기간에 교황은 세계의 도덕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나와 또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그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의 타협할 줄 모르는 도덕률 고수와 온화한 인품은 종교적 배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샀고 그의 미국 방문은 미국인들뿐 아니라 온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만일 교황이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그는 사실상 거짓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교황이 순수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 후에 빌리 그레함은 교황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정치가, 목양자 그리고 복음 선교사이다.” 라고 하였다. 빌리 그레함은 “교황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고 말하였고 또 교황을 ‘현대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불렀다. 물론 빌리 그레함은 교황과 카톨릭주의가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로마 카톨릭주의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전혀 경고하지 않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한 그레함의 많은

진술은 그레함이 속고 있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과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1983년 7월에 WCC 제6차 총회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는 WCC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에서의 WCC 프로그램의 한계는 너무도 넓고 또 부당하여 심지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 숭배자들의 행동을 환영할 정도였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두 각기 찬사와 환영사를 WCC에게 보냈다. 그런데 지금 빌리 그레함과 교황이 바로 이 도시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로마 카톨릭주의와 종교 통합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에 비성경적인 교제의 다리가 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빌리 그레함의 태도 변화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단일 ‘세계음녀교회’의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을 받는 종교 지도자 빌리 그레함 박사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즐거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살려면 그들의 행동과 말이 성경 말씀과 절대적으로 모순이 될 때 결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엡 5:11)고 하였다. 그레함은 계속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즉 카톨릭주의, 공산주의, 종교 통합주의와 결탁하여 그들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하나님

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빌리 그래함과 또 다른 많은 신복음주의자들과 은사주의 지도자들처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요이 1:9-11)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끝으로 이처럼 배도의 길로 내닫던 빌리 그래함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말하려는 비참함은 재정적, 물질적 비참함이 아니다. 단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기 바란다.

1997년 5월 31일 토요일 빌리 그래함은, 역시 배도하여 교황을 우러러보며 종교 통합에 앞장을 서고 심리학에 기반을 둔 각종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 목사와 TV 대담을 가졌다. 그 TV 대담에서 빌리 그래함은 극도의 영적 무지를 드러냈고 이제는 완전히 마귀의 종교 통합주의의 영(靈)에 사로잡혔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그 대담 내용으로 이것 역시 레이놀즈의 「Foundation」지(1997년 5, 6월호)에 실린 것이다.

슐러 : 자, 박사님, 이제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함 :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 그룹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그룹이 아닌 자들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 게로 이끌 큰 부흥이 조만간 일어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

남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모슬렘 세계에서나, 불교도 세계에서나, 기독교 세계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백성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으므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빛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으며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술 러 :** 무어라고요? 지금 박사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그래함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야생 상태로 거하고 있는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술 러 :** (잠시 동안 말을 못한 채 얼굴에 빛을 발하며)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니 참으로 흥분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넓은 것이군요.

**그래함 :** 물론입니다

**술 러 :** 박사님께서서는 신(Fulton Sheen) 주교와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에 대해 아시지요? 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함 :** 남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삶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선포하는 바를 그대로 지키며 사는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와 내 사역 및 술러 당신과 당신의 사역과 로마 카톨릭주의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톨릭 교인들은 손을 벌려 우리를 환영했고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천주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 혹은 그룹 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그래함 박사가 솔러에게 고백한 교리는 지금 이 시간 교황과 다른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외치는 거짓 복음이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며 성경과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교도라 할지라도 그가 선한 사람이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 신실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 교리이다.

지난 40여 년간 로마 교회의 풍성한 지원을 받으며 종교 통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빌리 그래함, 이제 그는 너무 교만하게 되어 영적으로 거의 미친 상태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마음의 눈을 멀게 하셨으므로 이제 그는 마치 구약 시대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믿는 형제 여러분,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빌리 그래함이나 교황을 따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따르겠는가?

초대 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코팔(Robert E. Kofahl) 박사가 정리한 ‘빌리 그래함과 로버트 솔러의 TV 방영 대담’ \* 녹음 테이프 원본을 원하는 분은 Mr. Amos Y. J. Koo, P.O. Box 112, Station F, Toronto, ON M4Y 2L4, Canada로 신청하기 바란다.

\* 이것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https://youtube/hrf60-zHI9A>

### 3 성인들의 신화 : 프란시스와 어거스틴

이 글의 프란시스 부분은 'Mission to Catholics International' (P.O. Box 19280, San Diego, CA 92159, USA)에서 발간한 「St. Francis : The Man and The Myth」를 번역한 것이고 앞부분과 어거스틴 부분은 구영재 선교사의 글이다.

#### 성자가 아닌 성도

사탄이 로마 종교를 이용하여 성취한 가장 악독한 일 중 하나는 기독교의 성도 말살이다. 먼저 '성자' 혹은 '성인' (Saint)이란 단어로 회칠당한 '성도' (Saint)란 단어를 생각해 보자. 종교는 금욕주의, 고행 등을 통해 도를 닦음으로써 자기 구속을 시도한다. 로마 종교의 성자들의 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성자 개념이란 결국 모두가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한 인간 중심주의와 남이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해 낸 인간 자랑이다. 사탄은 로마 종교를 통해 수많은 인간 성자(?)들을 양산해 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흐리게 해 왔다. 그들은 구원의 초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부터 인간들에게 두려고 온갖 술수를 꾸며 왔다.

살아 있는 죄인인 교황이 성자 추대식이라는 기이한 의식을 통해 죽은 죄인들을 성자로 대량 생산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기이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히 죄인인 한 인간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로마 교황청은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성자들을 생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로마 카톨릭교회는 베트남 성자를 추대해 주지 않는다고 로마 교황청에 항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너무 많은 성자를 만들지 않았나 하고 자책하는 로마 교황청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 날조된 성자들

한때 로마 카톨릭교회의 중(승려)이었다가 진리를 찾아 로마 종교를 떠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살아난 중」(*The Monk Who Lived Again*)이란 책을 펴낸 몬타노 박사는 카톨릭 도미니칸파 소속의 유능한 작가였다. 그는 어느 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포레스(Porres, 1579-1639)의 전기를 쓰라는 명령을 시달받았다. 그리하여 남미 페루의 도미니칸파 소속의 포레스를 성자로 추대하기 위한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전기를 써야만 했으나 한 번도 그를 만나 본 적이 없었다.

결국 얼마 되지도 않는 자료를 갖고 성자 추대에 필수적인 기적에 관한 자료를 보완해야만 했던 몬타노 박사는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포레스의 전기를 꾸며 로마 교황청에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포레스는 1962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성자로 추대되었다. 순전히 몬타노 박사에 의해 조작된 이 성자는 오늘날 페루의 사회 정의 구현의 수호성인이 되어 있고 이 날조된 성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안에 버젓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Porres, San Martin de 란 참조 바람).

사탄은 모조품 로마 종교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 인류를 속이기 위해 벨기에의 '제수이트들' — 예수회 사제들 — 인 볼란디스트파를 동원하여 17-20세기에 이르는 약 3백 년이란 세월 동안

로마 카톨릭교회 성자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악타 쌍토름」(*Acta Sanctourum*)을 편찬하였다. 전 유럽에서 일어난 제수이트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은 벨기에의 앤트워프, 브뤼셀 등지에서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 책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순교사로 읽혀지고 있다. 사실 현 시대 기독교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인용하는 로마 카톨릭 종교 성자들의 전기란 거의 모두가 이 책에서 유래되었다.

볼란디스트파의 우두머리였던 텔레하에는 그의 저서 「성자들의 전설」(*The Legends of the Saints*)에서 성지들에 관한 전설과 참된 전기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또 다른 로마 카톨릭교회의 학자인 아트워트는 「성자 사전」(*The Dictionary of Saints*)에서 “초기 순교자들에 대해 기록된 많은 것 중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많은 부분이 순전히 가공된 이야기이며 나머지는 전설과 전기의 배합물이다.”라고 시인하였다.

## 프란시스의 신화

이탈리아 종교사에서 아시시의 프란시스만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겉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매우 겸손했고 단순했으므로 카톨릭교인들과 프로테스탄트들 모두 그에게 매혹되었다. 확실히 그는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수도승이었다. 빛나는 갑옷을 자랑하는 기사들의 전성기에 또 카톨릭교회가 세속화의 절정기에 다다랐던 시기에 이 보잘것없는 수도승은 가난과 단순한 삶과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르치며 그 모습을 드러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격동의 시기에 프란시스는

가난을 외치며 단순한 삶을 주장했고 그로 인해 매우 유명해졌다.

이런 말을 하면 그의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이 모든 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프란시스 자신이 계획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큰 욕망과 야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 욕망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프란시스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젊어서부터 그는 유명한 기사가 되려 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따라서 자기 아들에게 이탈리아 사람의 품위에 걸맞는 매우 섬세한 옷과 멋있는 갑옷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비록 그가 젊어서는 난폭했지만 후일에 유명한 사람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언젠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볼 것이오.

성 보나벤투어에 따르면 아시시에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마치 예언자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람은 프란시스를 만날 때마다 자기 망토를 벗어 프란시스의 발밑에 펼쳐 놓고 프란시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렇게 경의를 포함으로써 나는 후대에 그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쉽게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영구히 자리를 잡곤 한다. 실제로 프란시스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은 그가 언제나 모든 것에서 앞서기를 원했다고 기록한다. 프란시스의 전기 작가인 앵글레베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프란시스의 야망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옷을 재거나 자기 돈으로 먹여

살린 무리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프란시스로부터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영적인 것을 기대했다. 그는 프란시스가 귀족의 대열에 낄 것을 바랐다. 사실 영광스럽게 이러한 것을 성취하는 길은 기사가 되는 것이었다. 1201년에 페루지아는 아시시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이 전쟁은 거의 10년이나 지속되었다. 1201년 11월에 프란시스는 폰테산 지오바니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으나 포로로 잡혀 페루지아에서 다른 기사들과 더불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매우 즐겁게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의 동료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니, 도대체 당신 미쳤소? 우리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농담이나 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프란시스의 대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생각해 보고 언젠가 온 세상이 나를 숭배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슬퍼하려면 슬퍼할 수가 없군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 교황청과 아플리아 지방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 프란시스는 이때야말로 자신이 기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기 아버지의 돈으로 산 멋진 갑옷을 입고 그와 그의 종자는 교황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로마로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그는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꿈은 프란시스가 야망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날 밤에 프란시스가 회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셀라노의 토마스는 최소한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옷감 파는 가게가 멋있는 무기와 안장 등으로 가득 찬 궁전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방에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신부를 보게 되었다. 프란시스가 영문을 몰라 놀라자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아름다운 여인과 군인들이 모두 다 그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프란시스는 아마도 이 꿈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어두움 같은 것이 그를 덮으면서 그가 내린 해석이 틀렸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다음 날 그가 스폰레토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음성이 다시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프란시스, 도대체 이 모습을 하고 어디에 가고 있느냐?”

“저는 지금 아플리아로 가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계속해서 말했다.

“주인과 종 중 누구에게서 네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했다. “물론 주인에게서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의지하는 주인을 따르지 않고 왜 종을 따르느냐?”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프란시스는 물어보았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면 네가 할 일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프란시스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되돌아간 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예전보다 더 즐거워 보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젠가 내가 바로 내가 원하던 그 위대한 왕자

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그가 자기 친구들에게 마지막 향연을 베풀고 아시시의 거리를 통과하여 음악 행진을 하다가 그들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강물같이 넘쳐나는 사랑 속에 빠져들게 되어 황홀감에 젖게 되었고 꼼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한 채 그곳에서 있었다고 토마스 사제는 기록한다.

그때부터 사랑이 그의 무기가 되었으며 급기야 프란시스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진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프란시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화를 내시며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던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지만 프란시스는 모든 종류의 노여움이 죄라고 생각했고 어떤 폭력이든지 다 증오했다. 심지어 그를 흠모하는 앙글레베르트조차도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용감했던 프란시스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방하려고 어떤 새로운 업적을 고안해 내며 사랑과 인자함에서 예수님을 능가해 보려 했으며 순교자가 되려 했고 끝내는 수난의 표적과 함께 죽고자 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인자함에서 예수님을 능가해 보려는 것 자체가 극도의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프란시스는 디도서 3장 5절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려 했으며 —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를 포함하는 —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추구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글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청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은 은총으로 더불어 이 편지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귀한 말씀으로 이 편지를 받으라.

크게 되고자 한 프란시스의 야망은 그의 회심 이후에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단지 크게 되기 위한 방법과 수단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프란시스는 스스로 기사도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서까지 자신이 꿈꾸어 온 유명한 기사가 되려 했다.

회심 후 몇 년간 그는 자신을 수장으로 두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기사 군대를 조직했다.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자요 위대한 왕의 전령이라고 선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원탁의 기사들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 기사들은 각각 부인이 있어야 했으며 그의 부인은 '가난' 이었다. 그는 바로 그것이 자기가 꿈에 본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다. 밖에서 그는 포베렐로 즉 '가난한 소자' 였지만 안에서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위대한 기사였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프란시스의 작품 중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널리 배포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섯 개의 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네 절은 음악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며 따라서 카톨릭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절을 아는 곳이 없다. 이 구절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아마도 카톨릭교회가 그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프란시스의 작품을 교묘하게 편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프란시스의 작품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그의 신학이 전적으로 로마 카톨릭 행위 신학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프란시스에 따르면, 구원은 선한 행위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례전을 통해 오게 된다. 그 예로 평화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유의해 보기 바란다.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구원이란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에 의해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려고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로마서 4장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으며 이 구절은 한마디로 그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롬 4:4-5)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영감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되 행위 즉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하신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했으니 이는 그가 믿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구원이 오직 그 믿음만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프란시스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선한 행위를 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인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카톨릭 신앙에 매달리자.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신부들을 공경하되 죄인일지도 모를 그 사람들(신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직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자. 이 신부들만이 제단 위에서 우리 주님의 가장 거룩한 몸과 피를 거룩하게 만들며 그것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구절의 문맥상 우리는 프란시스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앙 즉 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란시스를 극구 칭찬하는 프로테스탄트 작가들은 어쩌면 한 번도 그의 작품을 읽어 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다음의 글에는 미사와 신부직에 대한 프란시스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신부에게 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신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야만 하니 이는 그의 몸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에 따르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공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사를 드릴 때에 그분에게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력에 의해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것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된다.

심지어 프란시스는 성체 즉 빵 조각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 귀하고 거룩하므로 경의를 표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미사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과 다른 모든 것은 귀한 것으로 존중히 여겨야 한다.

프란시스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친 것은 다음 구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관대해야만 하나니 이는 구제하는 것이 죄로부터 사람의 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식에 관해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준수하며 과다하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참된 금식은 삼가 죄와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삼가 죄와 나쁜 습관을 멀리하여 사랑과 긍휼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신부에게 죄를 고하는 것과 미사에 참석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행위들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었다. 프란시스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선한 행위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 놓으신 일을 감사하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선한 행위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속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10절에서 먼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적고 그 뒤에 선한 행위의 삶을 적었던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이 점을 깨닫지 못했고 선한 행위와 로마 카톨릭교회

의 권위와 예식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아마도 프란시스는 자신이 청빈 생활을 주장했으므로 그 당시 카톨릭교회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놀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카톨릭교회의 교리 및 권위에는 절대적으로 충성했다.

이제 이 ‘가난한 소자’는 예언된 대로 전 세계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아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매우 비참하며 이 사실은 프란시스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버리면서까지 유명하게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연옥의 창시자 어거스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머리가 되는 소위 ‘교회교’를 창설한 오리겐을 위시하여 초대 교부들은 교회사에서 엄청난 망언의 시를 뿌렸다. 이 열매들은 첫 정치 신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해 암브로스와 어거스틴 등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우리네 기독교회사는 성경에는 없는 ‘바울-어거스틴-루터’라는 족보까지 만들어 놓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메시지’ 대신 ‘미사’ 곡까지 교회 안에서 연주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통합시키려는 욕망에 불탔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신의 영감을 받았으므로 그 기원이 신성하며 신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그릇된 가정하에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정립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란 죄명을 씌운 로마 교회는 오리겐이 주장한 ‘유대인들 개종, 추방, 멸종의 3단계 이론’을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의로 삼아 오늘

날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을 취하며 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제거했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논증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생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뿐이다.



어거스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국가-교회’ (State-Church)를 국가 체제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반면에 교황들은 세상 군주들을 교황 권 아래 두고 다스리는 ‘교회-국가’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지상의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하며 국가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교회-국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럽 교회의 성서로 불려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 — 원제목은 「이교도들에 맞서는 하나님의 도시」임 — 이라는 역사 사회 철학서는 예수님의 복음에다 키케로, 마니, 플라톤 등의 이교 사상을 혼합시킨 것으로, 카톨릭교회가 지상에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한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문자 그대로의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배하는 가시적인 교회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무천년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아 있어야 할 로마 교회가 국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였을 때 사탄은 사도 바울에 버금가는 극적인 회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사도 바울의 논리성에 견줄 만한 논리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이라는 종교적 천재를 기독교회사에 출현시켰다.

사실 어거스틴은 어거스틴 연구가들에 의해 실제와는 매우 다르게 미화되었다. 그는 국가 교회로 전락한 로마 교회 안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교권에 밀착하고 말았다. 제롬, 비드 등이 ‘옛 바빌론의 딸’로 간주한 신약의 ‘로마의 멸망’을 변호하기 위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시」를 쓰게 되었고 이 책은 4세기경에 ‘교회-국가-종교’의 모든 신학적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해답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주후 410년, ‘영원한 도시’ (?)로 간주되어 온 로마가 흔들리자 카톨릭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의 도시」란 표현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의 글에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유세비우스는 시편 87편 3절을 주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성경의 예루살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는 이 같은 유세비우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옛 바빌론의 ‘도시 - 국가’ (City-State)에 뿌리를 둔 그리스의 폴리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역, 종교, 법, 문화, 도덕 등 모든 것이 같아야 함을 의미했고 어거스틴의 도시 개념 또한 정치와 종교가 즉 카이사르와 그리스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도시 - 국가’ (City-State)였다.

어거스틴은 여러 곳에서 누누이 「하나님의 도시」가 곧 카톨릭교회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도시는 거룩한 교회이다(8권 24). 그의 교회인 하나님의 도시(15권 26), 하나님의 도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16권 2), 하나님의 도시에 대하여 즉 교회에 대하여(시편 주해 71:18), 하나님의 도시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시편 주해 98:4)

독자께서는 부디 그가 말하는 ‘교회’란 다른 아닌 ‘카톨릭교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스(Ambrose, 339-397)는 성골, 유물, 마리아 숭배 사상 등을 로마 교회 안에 들여 놓은 첫 교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귀족주의적인 권위주의자였다. 그는 카톨릭교회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그는 로마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였고

믿음의 영역에서 주교는 기독 황제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 황제는 주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둘째, 국가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독교의 도덕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데살로니가에서의 반란 진압시 특별히 잔인성을 보인 데오도시우스 대제에게 교회에서 참회(고해 성사)할 것을 강요하였다.

셋째, 암브로스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결속 관계를 추구하였고 이 일이 교회에 크게 유익하리라 확신하였다.

그는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절대적인 고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로마 카톨릭교회의 왕자였다. 로마 제국과 앞으로의 모든 황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도나티스트파는 그들의 신학자였던 티코니우스의 지도 아래 흠 없고 순수한 교회를 동경하였다. 어거스틴도 그를 흠모하였으나 도나티스트파를 향하여는 “교회와 국가는 독립된 권력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이다.”라고 설파하였다. 카톨릭 공회는 콘스탄틴 대제에게 도나티스트파를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317년에 카톨릭교회는 군대를 동원하여 도나티스트파를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몰수하였다. 그리고 404년에는 ‘화합 칙령’ (Edict of Unity)하에서 그들을 박해하였다.

파라(F. W. Farrar, 1831-190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성경을 짜 맞추어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해석을 이끌어 낸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점이 있다. 그는 교회 즉 카톨릭교회의 정설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만 하며 어떠한 성구도 다른 어느 것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란 교권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권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카톨릭교회의 권위가 지지해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시되어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맡겨져 있고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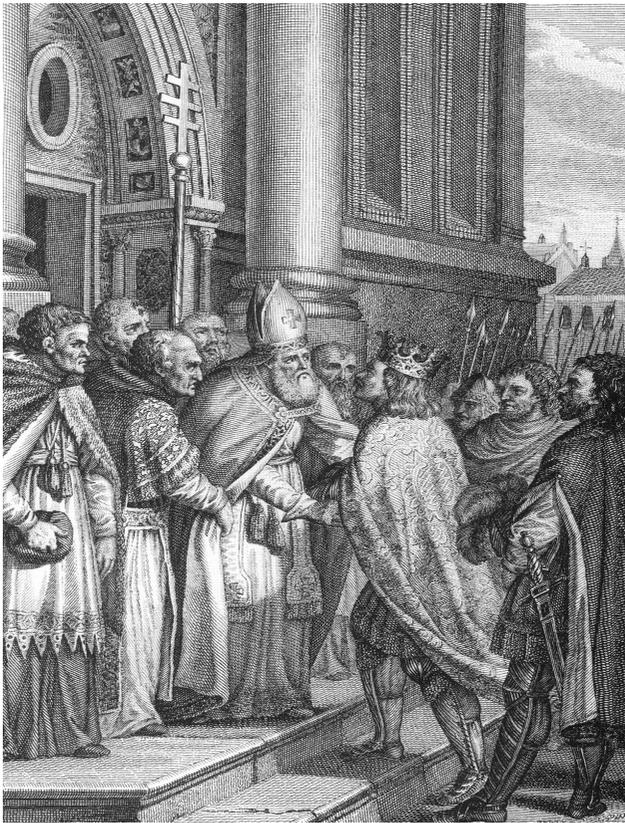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를 오류 투성이인 교회로 대치함으로써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사탄의 교회교’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에게는 교회 자체가 진리의 표준이었고 따라서 교회가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권위나 교회를 판단하는 교회 이상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교회의 책 즉 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말씀해 주듯이, 교회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는 창조물이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이후로 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개시켜 왔던 것이다.

어거스틴이 제공한 하나님의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 교회는 세속적인 권세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그들은 ‘콘스탄틴의 기증서’ 등의 위조문서를 만들어 자신들을 합법화하려 했으나 이것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 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교회 내의 니콜라스(Nicholas of Cusa, 1401-1464)였고 그 이후에는 발라(Lorenzo Valla, 1406-1457)가 더 정확히 그 문서의 허위성을 증명하였다.

「하나님의 도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샤를마뉴

(Charlemagne, 742-814) 대제의 정치 교과서가 되었다. 또한 이 책은 '로마의 통치자는 천국의 안수를 받은 자' 라고 선언하며 십자군 원정을 선동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한 성 베르나(Bernard de Clairvaux, 1090-1153)를 부추겼다.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 교황 하드리아안 1세를 방문한 샤를마뉴

사실 카톨릭교회의 부패로 인해 중세 때에 이미 프란시스파는 여우로, 도미니칸파는 늑대로 불렸고 위클리프(John Wyclife, 1330-1384)는 계속해서 갈멜파 및 어거스틴파의 만행을 폭로했다.

12세기의 오토(Otto of Freising, 1114/15-1158, 독일의 주교,사가,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가 로마 제국의 연장인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이론을 펼쳐나감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발전을 부채질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어거스틴의 비전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들을 첨가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옹호했으며 그 뒤 로마 카톨릭교회는 합스부르크가를 역사 안에 등장시켰다.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의 굳건한 독재주의 이론을 첨가시켜 로마 카톨릭 군주들을 늘 로마의 중심으로 모이게 하였다. 루터의 종교 개혁(Reformation)이 로마 교황청과 합스부르크가를 흔들기는 하였으나 로올라(Ignatius Loyola, 1491/1495-1556)의 반개혁과 이어서 일어난 카톨릭의 르네상스를 통해 로마 카톨릭교회는 더욱더 조직화되었다. 그 결과 교황의 문장(Papal Coat of Arms)이 모든 도시 및 촌락의 중요한 자리에 나붙게 되었고 로마 교황청은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화가를 비롯한 모든 예술 분야의 재능가들을 로마 교회로 끌어들었다.

루터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 모두가 동등한 만인 제사장(벧전 2:9-10)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반면에 옛 그리스 및 로마의 혼합된 사상에 뿌리를 둔 반개혁 사상은 루터가 크게 훼손시킨 제사장/성직자 계급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철저하게 구분지었다. 이들은 특별한 의장, 타이틀, 행동 규범을 고안하여 성직자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

했고 그 결과 중세 암흑시대를 능가하는 성직자 무리가 생산되고 말았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의 평신도라는 말은 ‘다른 예수’(고후 11:4)로 둔갑하여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휘둘렀던 사제들에게 ‘종속된 백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편협하고 미신적이며 거의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사회적 신분 유지 및 세상적 출세를 위해 이미 아들까지 낳고 동거 중인 그의 내연의 처를 지옥으로 보낼 정도의 인격을 가진 여자이며 인간 양심의 도덕법마저 무시한 종교적 잔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로마 교회의 ‘다시 태어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위로부터 임하여 인간의 질을 재창조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들려주듯이 로마 카톨릭교회에 귀의하여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의 제도적 의식이 마치 다시 태어남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사악한 카톨릭주의의 제도에다 고해 성사라는 또 다른 굴레를 하나 더 씌워 주었다.

어거스틴의 수도원 규칙을 보면, 그는 아비 종교를 더욱 강조하여 아비 계급에 절대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제를 신부(神父) 즉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영어권에서도 카톨릭교회의 사제는 ‘Father’로 불린다. 그들은 베드로를 유일한 카톨릭교회(One Catholic Church)의 통일성으로 삼고 — 참고로 제롬과 더불어 어거스틴이 만든 교황 리스트는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 교회의 특성을 머리되신 그리스도에 두기보다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전통’에 두고 있다. 3세기경에 오리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암브로스에게 왔

을 때 그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다 ‘성물 숭배 사상’을 더했고 어거스틴은 이 모두에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인정하는 연옥설을 보태어 ‘연옥설의 원조’가 되고 말았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펴전 1:15)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의 고백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영생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온 영혼으로 체험하였으며 이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그의 짧은 서신서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무려 164회나 기록되었다.

그런데 영생의 심판자 노릇을 해 온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 안주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온통 카톨릭교회로 가득 차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실은 그가 복음을 모방한 거짓 종교에 빠진 채 침울하고도 우울한 종교적 위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종교성 테두리 안에서 끝없이 방황하였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는 악의 비참함을 철저히 되씹음으로써 얻게 되는 종교적 위안을 통해 회한의 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찾지 못했고, 따라서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빌 3:13-14)라고 한 그 환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하르낙(Adolf Harnack, 1851-1930) 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카이사르적이고 동시에 어거스틴적인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토록 자상하게 설명한 은혜에 이르는 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밖에서 어거스틴의 은총론 같은 인본주의 은총론을 들먹여야 하는가?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공회 중 가장 사탄적인 공회로 알려진 트렌트 공회가 결정하고 발표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의인론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어거스틴파에 속했던 루터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와 수도원에서 수많은 현대판 모니카와 어거스틴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아직도 인간의 종교적 은총론에 갇혀 방황하고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성구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고 있는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성모 교회 즉 ‘거룩한 어머니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딤후 3:5). 비록 그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뒤적이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살아 계신 생명의 주’를 찾고 있으나 그들의 길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큰길이다.

## 4 그리스도를 찾은 사제

이 글은 50명의 전직 카톨릭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간증을 담은 「*Far from Rome, Near to God*」(미국 AP&A 출판사 출간)에서 자켈로(Dr. Joseph Zachello)의 간증을 번역한 것이다.

저는 1912년 3월 22일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 베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열 살에 피아센자에 있는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창 생활을 했고 그로부터 12년 뒤인 1939년 10월 22일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선배 신부인 로시 추기경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시카고에 새로 지은 '성모 카브리니' 라고 하는 이탈리아 천주교의 부주교로 임명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처음 4년 동안은 시카고에서 설교하였고 그 뒤에는 뉴욕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설교와 훈화가 성경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황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요 또한 가장 염려하는 바였습니다.

1944년 2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는데 우연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사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저는 프로테스탄트의 설교를 들도록 허락받지 않았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지 흥미로울 것 같아 그대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라디오를 통해 제가 들은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저

의 과거의 신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의 마음은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천주교의 교리와 교황의 명령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가난한 천주교인들에게 그들의 친척들의 영혼이 지옥 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미사’라는 이십 분 동안의 예식에서 5달러 내지 30달러의 돈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사 때마다 저는 제단 위에 있는 못 박혀 달린 십자가상을 바라보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간신히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주면서 그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다. 너는 내 교훈을 거스르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연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다기 때문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계 14:13)

나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니 미사를 통해 또다시 십자가의 희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나의 구속 사업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중에서 일으키신 것이 그 증거이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히 10:14)

만일 너희 신부들과 교황들이 '미사'와 '면죄부'로 사람들의 영혼을 연옥에서 자유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너희는 연보를 받고자 하느냐? 만일 불구덩이에서 개가 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너는 그 주인이 개를 건져 내기 위해 네게 혹시 얼마의 돈을 바칠까 하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감히 제단 위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라고 내가 설교하고 있었을 때 예전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도 로마에서 교황을 봤겠지? 그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과 정원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광경들도. 너는 진정 교황이 나를 대표한다고 믿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왔다. 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겼고 또 세상에서 머리 돌 곳조차 없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 성경은 명백히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은 성령이라고 했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14:26) 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 위에 세웠다고 믿는단 말이나? 교회를 세울 그 반석은 바로 나 그리스도이다. 만일 로마 교회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나의 교회가 아니다.

이 음성은 제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성경은 신앙의 완전한 규범이 아니라는 것과 천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성경의 교훈을 거슬러 가르치고 있다. 만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황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교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필요로 하겠느냐? 나는 이미 전통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 주었으니 이는 어느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저는 교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께로 가는 대신에 성모 마리아나 성자들에게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누가 자기의 피를 흘리며 네 빛을 갠 주었느냐? 마리아나, 성자들이나, 나 예수냐? 너와 다른 많은 신부들은 화려한 장식품들을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단순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식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두고 판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기 때문이다. 결단코 나는 내 교회에서 어떤 상품의 매매도 원치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내게 경배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교인들에게 기도할 것과 나에게 가까이 나올 것만을 가르쳐라.

그 뒤 저는 고해 성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저는 가슴에 십자가를 찍으며 죄를 용서하여 줄 능력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와 권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소리는 저를 또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다. 만일 어떤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으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네게로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한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나 예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 1:21)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행 4:12)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딤후 2:5)

저는 더 이상 로마 교회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교황과 그리스도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통과 성경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 마침내 저는 천주교의 신부직과 천주교를 버렸고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주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 5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글은 클라우드 형제가 1985년에 처음 기록하고 그 뒤 2007년 9월에 내용을 수정/보완한 「Was Mother Teresa a True Christian?」을 번역한 것이다. 원본 글은 같은 제목으로 [www.WayofLife.org](http://www.WayofLife.org)에서 구할 수 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 8월 27일,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고 원래 이름은 아그네스 곤카 보자크(Agnes Gonxha Bojaxhiu)였습니다. 중산층의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12살에 수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 뒤 5년이 지나 1928년에 자기의 친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실로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다르질링이란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곳은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 2,100미터에 위치한 아름다운 소도시였습니다. 1931년에 그녀는 프랑스의 성자인 리시우스의 테레사(Therese of Lisieux)라는 이름의 수녀를 따라 이름을 테레사 수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마지막 맹세를 하고 캘커타 근방의 수녀원에서 성 마리아 학교의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1946년에 다르질링에 쉬러 가면서 그녀는 빈민가에서 일하라는 소명을 느꼈고 1948년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하얀 사리 - 인도 여자들이 입는 옷 - 를 입고 캘커타의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로마의 바티칸은 1950년 10월 7일, 그녀가 세운 단체에게 '사랑의 선교사들' (The Missionaries of Charity)이라는 공식 명칭을 주었습니다. 1952년에 그녀는 남부 캘커타에서 니르말 호

리데이(Nirmal Hriday)라는 이름의, 죽어 가는 빈민들을 위한 집을 세웠습니다. 그 뒤 그녀가 죽기까지 약 54,000명의 사람들이 니르말 흐리데이에 들어왔습니다.

1963년에 ‘사랑의 선교사들’은 남자 일꾼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4,500명의 수녀와 500명의 남자 일꾼들이 120여 국에서 600여 개의 그런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97년 9월 5일 87세의 나이로, 50년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 테레사 수녀의 선행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친절하고 헌신적인 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서 16년 이상 살았고 또 여러 번 인도를 방문하여 직접 캘커타에서도 몇 주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나 역시 테레사 수녀가 범상치 않은 자기 희생의 인물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캘커타의 1,000만 거주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극빈자이며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불결한 거리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하고 기거하다가 죽어 간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람의 영을 몹시 짓누르는 곳입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12번 이상 그곳을 방문하면서 나는 그때마다 캘커타의 비참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닙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Winston Churchill)도 캘커타를 처음 방문하고서 “이번에 여행하기를 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참 잘했다!”고 한 것은 이번 한 번의 방문으로 족하며 또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연 캘커타는

여러 면에서 열악한 곳이며 그곳 거주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 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그녀가 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각에서 테레사 수녀가 선택한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본서의 제목이 된 질문 즉 “성경적인 의미에서 테레사 수녀는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인가, 과연 크리스천들이 테레사 수녀와 그녀의 선교 단체에 동조하고 동역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 테레사 수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테레사 수녀는 분명 자기의 일로 인해 합당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1979년에 이 세상은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고 그녀는 그 밖의 여러 분야의 상들 - 국가 수뇌부, 과학자, 언론 등에 의한 상들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수여한 영예를 받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80년에 인도 최고의 영예인 바라트 라트나 상을, 1985년 6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시민상인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또 1985년 10월에는 유엔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뜨거운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1997년 6월, 그녀는 미국 국회에서 연설했으며 미국 국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국회 금메달도 받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속한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1971년 교황 요한 23세(Pope John XXIII)는 그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가 죽자 로마 교회는 바오로 2세와 고위 성직자들을 통해 그녀를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뉴욕의 오코너(John O' Connor) 추기경은 이제 그녀가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3월, 교황 바오

로 2세(Pope John Paul II)는 그녀를 공식적인 성인 반열에 추가하기 위해 속성으로 추가 절차를 승인하였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려면 죽은 뒤 5년이 지나야 공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테레사 수녀의 경우에는 단지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공식적인 성인으로 교황에 의해 인정을 받고 있고 이제는 교회의 법령을 통해 정식 성인으로 추대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캘커타의 수자(Henry Sebastian D' Souza) 대주교는 이미 성인 추대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의 성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그룹들의 대다수도 이에 동조하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령 300개 이상의 회원 단체로 구성된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와 같은 대다수의 주요 프로테스탄트 단체들도 예외 없이 테레사 수녀를 높이며 그녀를 '복받은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WCC의 회원으로서 2,000개 이상 지역 교회의 70만 인도 기독교인을 대표하며, 매달 공식적인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 북인도 교회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79년 11월호 「북인도 크리스천」 잡지의 표지 인물로 미소 짓는 테레사 수녀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인인 데바다스(V. Henry Devadas)는 테레사 수녀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테레사 수녀를 축하하며, 우리나라의 불쌍한 극빈자들을 보살피는 그녀의 자비로운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감명을 주게 되길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또한 인도성서공회의 간행물인 「Sowing Circle」

잡지의 1990년 1월-4월호 표지 인물로 실렸습니다. 그 잡지는 사진과 함께 성서공회 총무인 프리머닉(B.K. Premanik)이 테레사 수녀를 방문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크리스천들은 테레사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소하고 겸손하며, 하얀 수녀복을 입은 한 여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많은 분량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성서공회의 일부 성경 관련 책들에는 그녀의 사진이 인쇄되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녀의 이타적인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힘을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기독교 공동체가 그녀의 모범된 행동을 배우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카톨릭교도들 그리고 자유주의에 몰든 프로테스탄트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절대적인 갈채를 보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위 성경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녀에게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 선교회로 자처하는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 신문은 애나하임 스타디움에서 열린 ‘1981 예수전도집회’에 대해 1981년 5월 16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월드비전 잡지의 1984년 6월-7월호에는 월드비전의 북서부 지역 책임자 리언(Joseph Ryan)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글에서 그는 로마 카톨릭 사랑의 선교사들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던 일을 기술하고 있다. 빈민을 돕는 수교로 유명한 이 여인은 겸손한 태도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는 몇 마디의 말로 월드비전에서 온 방문객들을 감동시켰다.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래함은

다음과 같이 1997년 9월 6일 연합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경우에 그녀와 함께 일한 것이 내게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캘커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저녁 무렵에 주님 안에서 그녀와 함께 놀라운 교제를 나누었는데 지금도 나는 그곳의 아름다움과 냄새와 소리 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내게 인사하려고 방에 들어 왔을 때 실제로 나는 살아 있는 성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Mother Teresa Hailed as a Saint," Associated Press, Sept. 6, 1997).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주의 정기 간행물인 「생명의 빛」 잡지 또한 1982년 1월호 사설에서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1997년 5월,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TV 설교자인 케네디(D. James Kennedy)는 테레사 수녀를 다루면서 “테레사 수녀보다 사랑에 대해 더 잘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말하였다.

1989년 11월 호에서 제임스 돕슨(James Dobson)이 발간하는 'Focus on the family' 프로그램의 클럽 잡지는 표지에 미소를 짓는 테레사 수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캘커타의 테레사: 큰마음을 가진 작은 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잡지를 읽은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녀가 사랑의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6년, 멤피스에서 열린 프라미스 키퍼스(Promise Keepers, 한국의 아버지 학교) 회의에서 연설자로 나선 콜슨(Chuck Colson)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단의 장벽을 허물 때가 왔으며 자기는 테레사 수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Calvary Contender, November 15, 1996). 또 콜슨은 2003년도에 출간한 자신의 책 「몸을 이루는 것」(*Being the body*, 64쪽)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테레사 수녀

가 죽기 전에 속히 캘커타로 가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온 세상이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월로우크릭 교회의 하이בל스(Bill Hybels) 목사는 카톨릭 사제인 라즈(Med Laz)를 초청하여 자기 교인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로마 카톨릭교인임을 라즈가 자랑하자 하이בל스 목사는 사실 프로테스탄트들이 그것을 부러워한다고 인정했습니다(Dave Hunt, *Occult Invasion: The Subtle Seduction of the World and Church*, 1998).

은사주의자들 역시 테레사 수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은사주의 지도자인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내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라는 주제로 특별 TV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다른 저명한 기독교 인사들과 함께 여기에 출연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은 150개의 TV 채널과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EP News Service, Aug. 25, 1984).

1989년 3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개최된 ‘표적과 기적 대회’에서 Wimber(John Wimber)는 테레사 수녀를 칭송하였습니다(Protestant Review, March 1989).

1992년에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의 크로치(Jan Crouch)는 테레사 수녀를 만남으로써 자기의 평생소원을 성취하였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개의 질문을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여인이 곁에 오자 나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 대할 때 느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바로 예수님을 만날 그런 영광스런 일이 어떨지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Plains Baptist

Challenger, June 1992).

1997년 월드 잡지는 ‘보통 믿음: 테레사 수녀의 삶은 우리 역시 가서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두 번째 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하늘의 문들은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하였다”(David Kuo, “An Ordinary Faith,” World, Oct. 4, 1997, p. 26). 사실 이런 진술은 복음을 모른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천국에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녀는 자기가 마리아와 미사 등과 같은 천주교회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수도 없이 진술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97년 11-12월 호에서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Worldwide Church of God)라는 교단이 펴내는 「Plain Truth」 잡지는 테레사 수녀를 표지의 인물로 삼고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20, 21일에는 ‘데이빗 제레마이아와 함께 하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은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암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기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인용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기독교계의 각계각층의 절대 다수로부터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실질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테레사 수녀의 사역이 현세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위대하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

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 8:20)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결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 7:21-23)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섬기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영들과 거짓 복음들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고후 11:3-4). 마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위조해 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회심 교리와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데살

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행 17:11)

현재 교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미움이 많은 문제투성이 신자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심하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피느니라.” (잠 14:15)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영적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한 마귀가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며 마귀의 사역자들이 스스로를 의의 사역자로 변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고후 11:14-15)

이런 것이 현실이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혹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그 사람이 의지하는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따르는 영을 신중히 조사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까? 그녀가 돌보고 인도하는 자들의 영원한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아무리 인기가 없고 구태의연한 판단행위로 매도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 복음적인 카톨릭교도라고요?

많은 이들이 테레사 수녀가 제2차 바티칸 공회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복음적인 로마 카톨릭교인’이며 그녀의 사역이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자선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참 복음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철저한 로마 카톨릭교인이고 카톨릭교회의 충성되고 신실한 추종자이며 로마 카톨릭주의에 충성을 - 그녀가 여성 사제직 수임을 지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시인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선언문이 카톨릭교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 조직의 근본적인 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거짓 가르침들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것들을 강화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주교들은 로마 카톨릭주의가 주장해 온 이전의 이단적 교리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것들은 곧 교황의 수위권, 로마 카톨릭 사제직, 미사의 화체설, 성례전을 따르는 믿음 더하기 행위 복음, 성경과 동등시되는 카톨릭주의의 전승(전통), 그리스도와 공동 대속자이며 하늘의 여왕(황후)인 마리아, 고해 성사, 성지 순례,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죽은 자에게 하는 기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카톨릭 교리의 모든 것은 「제2차 바티칸 공회와 그 이후의 문서들」(*Vatican Council II-The Conciliar and Post Conciliar Documents*)이라는 책에서 재차 확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1975년 8월 12일

룩빌 센터의 주교인 켈렌베르그(Walter P. Kellenberg)의 임프리마터(Imprimatur)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프리마터란 로마 카톨릭 출판물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도장으로서 ‘출판을 허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서들 중 몇 가지 인용문을 살펴봅시다.

#### ■ 성경과 동등성을 가지는 카톨릭주의의 전승

거룩한 전승 즉 전통과 거룩한 성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는 계시된 모든 진리들에 관한 확신을 성경으로부터만 가져오지 않는다. 성경과 전승, 이 양자는 동일한 흡수와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Dogmatic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Chap. 2, 9, p. 682)

#### ■ 성례전과 교회를 통한 구원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전례 전적인 삶의 핵심인 제사와 성례전을 통해 그들이 전파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파스카적 신비 속으로 접목되며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 Chap. 1, I, 5, 6, pp. 23-24)

#### ■ 세례를 통한 구원

세례 성사가 주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수행되고 이를 바른 정신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사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남으로 신적 생명을 공유하게 된다. (Decree on Ecumenism, Chap. 3, II, 22, p. 427)

#### ■ 구원을 분배하는 교황

하나님의 독생자계선 전투를 하는 교회를 위해 한 보화를 쟁취하시고 그것

을 복된 베드로 즉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땅 위에서 그의 뒤를 이을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신심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분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복되신 하나님의 어머니의 공덕과 모든 선택받은 이들의 공덕은 이 보화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 Apostolic Constitution on the Revision of Indulgences, Chap. 4, 7, p. 80)

■ **영원한 동정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여왕으로서 몽소승천하셨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는 신심 깊은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머니시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늘 기억하며 흠송해야만 한다. 이는 그녀가 송고한 은혜의 선물로 인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보다 지극히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원죄의 얼룩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무염 시태되신 동정녀께서 지상의 삶을 마치신 뒤 그녀의 몸과 혼은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제 그녀는 만유를 통치하는 여왕으로서 주님에 의해 높여지셨다.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hurch, Chap. 8, I, 52-53; II, 59, pp. 378, 381- 382)

■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구속자이다.**

이레니우스가 말했듯이 순종을 통해 그녀 자신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따라서 적지 않은 초기 교부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에서 이레니우스와 함께 기꺼이 이브를 통한 죽음과 마리아를 통한 구원을 단언하고 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어머니와 아들의 이 같은 연합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드러나 있다.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hurch, Chap. 8, II, 56, pp. 380-381)

■ **마리아는 하늘의 중보자이다.**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그녀는 이 같은 구원의 직무를 옆으로 제쳐 놓지 않으셨다. 그녀는 수없는 중보를 통해 끊임없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부여하고 계신다. 그녀는 모성애를 통해 자기 아들의 형제들 곧 복된 본향에 이르기 위해 위험과 역경에 둘러싸여 지금도 지상을 여행하는 형제들을 돌보신

다. 그러므로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협조자, 은혜의 수여자며 중보자로서 일컬어진다.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hurch, Chap. 8, II, 62, pp. 382-383)

제2차 바티칸 공회 문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은 「Evangelicals and Rome」이라는 제목의 책에 있으니 원하면 Way of Life에서 구입하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의 교리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카톨릭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테레사 수녀가 무엇을 믿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들에 직면하게 되면, 카톨릭교회와 테레사 수녀가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도가 천주교의 거짓 복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거짓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건전한 교리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요일 2:19) 온전히 구원받아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오류를 거부할 것입니다.

### 테레사 수녀의 믿음

테레사 수녀는 철저한 카톨릭교도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충성

스럽게 따르는 추종자일 뿐만 아니라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녀는 미사의 빵 조각 즉 '성병'을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있습니다. 1986년 6월, 평화를 위한 제2차 로사리오(Rosary, 묵주) 기도회에서 테레사 수녀가 연설한 것을 살펴봅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총은 제단을 섬기는 사제인 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사죄 선언에 의해 죄로 가득 찬 죄인이 죄 없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제 중 한들을 봉헌함으로써 여러분이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한마음 곧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The Tidings, Los Angeles, California, June 20, 1986)

이처럼 테레사 수녀는 카톨릭 사제들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일한 모임에서 그녀는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로사리오 기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 세계의 모든 거리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해야 하며 모든 교구 내에서 성체를 숭배하여야만 합니다.” 그녀는 마리아를 ‘우리의 모범이신 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고 평화를 위해 로사리오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The Tidings, Los Angeles, Calif., June 20, 1986)

## ■ 테레사 수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다

1985년 10월에 유엔 총회 앞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40여 년간 아름다운 일을 해 온 유엔의 사역

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민족적인 차별이 우리들 사이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Christian News, Nov. 11, 1985, p. 17).

테레사 수녀는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관해 그녀가 한 말을 들어 봅시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입니다. (Time, Jan. 13, 1986)

1990년 4월 7-13일의 ‘라디오 타임즈’ 기사는 테레사 수녀가 힌두교의 한 원로 사제를 보살핀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손수 그를 간호하였고 그가 죽을 때 그가 믿는 신들과 그가 화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사들이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선 앤 수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자서전인 「그녀의 사역과 사람들」에서 도이그(Desmond Doig)는 그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가 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며 그리하여 우리는 보다 훌륭한 회교도, 보다 훌륭한 카톨릭교도 또는 우리의 종교가 무엇이든 보다 그 종교 안에서 좀 더 훌륭한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1986년 11월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개최된 평화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기도 모임은 교황이 주선한 것이며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기 참석하였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신교, 시크교 및 북미 인디언 등을 포함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Time, Nov. 10, 1986, pp. 78-79).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자서전 작가인 차울라(Naveen Chawla)는 자기가 예전에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사람을 회심시킵니까?”라고 묻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물론이지요. 나는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좀 더 좋은 힌두교도, 좀 더 좋은 천주교인, 좀 더 좋은 프로테스탄트를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Mother Teresa Touched other Faiths,” Associated Press, Sept. 7, 1997).

#### ▪ 테레사 수녀가 사제들에게 행한 강연

테레사 수녀의 견해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비성경적인가를 입증해 주는 또 다른 증거로서 1984년 10월 바티칸시 바오로 6세 강당에서 개최되었던 범세계 사제 대회에서 행한 그녀의 강연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제의 말 한마디로 조그만 빵 조각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리하여 사제 여러분은 이 살아 있는 빵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역시 살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들과 카톨릭 신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 있고 거룩함을 향해 굶주려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굶주림을 나는 힌두교도와 회교도들에게서도 목격했습니다. (Mother Teresa, cited in *Be Holy: God's First Call to Priests Today*, edited by Tom Forrest, C.Ss.R., foreword by Msgr. John Magee, South Bend, Indiana:

나는 몇 년 전 예멘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우리 수녀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분께 난색을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예멘에는 공식적인 미사를 집행할 만한 성당이 허용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수녀들을 보내기 원했지만 사제들 없이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녀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멘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좋습니다. 수녀들과 함께 사제들을 보내시지요.' 오직 사제들이 거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제단과 성막과 예수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철저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그곳에 모셔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먼저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제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제이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Mother Teresa, Be Holy, pp. 109, 111)

그러므로 우리의 성모께 요청합니다. 성모께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마리아께 대한 우리의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가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보호자이시요 어머니이시므로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Mother Teresa, Be Holy, p. 75)

어느 날 캘커타에서 일하는 한 소녀가 와서 팔로 나를 감싸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에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을 발견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1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해 성사를 하러 가서 사제의 손으로부터 성체(Holy Communion)를 받았어요.' 그녀는 환한 얼굴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그 소녀에게 예수님을 주었으므로 이제 소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Mother Teresa, Be Holy, p. 74)

우리는 그분의 성심 즉 '거룩한 심장' (Sacred Heart)에 그들을 봉헌함으로써 신도들 삶 속에 기도를 날라다 주고 로사리오를 말하도록 가르침으로 그

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사제들은 이전에도 항상 이렇게 해 왔고 또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정들이 예수님의 성심에 그들을 봉헌함으로써 평화와 기쁨과 거룩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바로 여러분 곧 사제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another Christ)라 불리고 있습니다. (Mother Teresa, Be Holy, p. 112)

테레사 수녀가 복음적인 크리스천이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거짓 종교를 신봉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 테레사 수녀의 동역자인 앤 수녀와의 인터뷰

테레사 수녀의 동역자인 앤 수녀와의 인터뷰에서 테레사 수녀가 사역의 근거를 둔 영적 배경에 관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몇 가지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서 언급한 제2차 바티칸 공회와 카톨릭 교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사역이 세상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인터뷰로부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쉽사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사역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종교인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역은 저주받을 거짓 복음을 조장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침상에 누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거짓 신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헌신의 노력은 저주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사역을 그 어떤 크리스천도 지지하거나 돕거나 칭송해선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수없이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기

록의 이같이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순종하는 크리스천과 불순종하는 불신자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 8:47)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천주교 수녀로 일하는 앤 수녀와의 인터뷰를 녹음해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인터뷰는 1984년 11월 23일 파슈파티사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앤 수녀는 네팔의 성스러운 강인 바그마티강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절망적인 노인들을 부양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인들의 소망은 이곳 ‘성지’에서 죽는 것으로서 특히 그들은 이 강물에 발을 담그고 죽을 경우 힌두교가 가르치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터의 불길이나 타오르는 곳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이교 의식의 성스러운 불꽃 속에서 소각되고 있는 시체들의 고약한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강에서 60미터 정도 떨어진 한 힌두 사원의 조그마한 방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은 과부, 부랑자, 노인들을 위한 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그마티강은 히말라야산맥으로부터 네팔을 관통하여 광대한 인도의 평야로 흘러 들어가고 거기에서 힌두교의 지극히 성스러운 강인 갠지스강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갠지스강은 영원히 정결하게 남아 있으며 마르지 않는 강으로서 해

마다 35,000여 구의 확장된 시체들의 재가 떠내려가는데 이는 인도 사람들이 갠지스강이 사람의 혼이 정화하여 죽음과 환생의 끝 없는 수레바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선교회의 수녀들이 일하고 있는 이 장소는 네팔에서 최고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사원 지역으로서 그 중앙에는 금으로 만든 대형 황소가 놓여 있습니다. 이 황소가 지극히 거룩한 사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힌두교도들은 그곳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사원 전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사악한 시바 우상들과 기타 힌두교 신들로 뒤덮여 있으며 사랑의 수녀회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회견자** : 여기에 살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앤 수녀** :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요.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 이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회견자** : 그래서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앤 수녀** : 그래요, 우리는 평등하며 그녀의 딸들입니다.

**회견자** : 같은 서열이란 뜻인가요?

**앤 수녀** : 물론이죠. 같은 서열이며 같은 지체입니다.

**회견자** : 그렇다면 이곳 카트만두에서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앤 수녀** : 1년이 채 안됐죠. 11개월 째입니다.

**회견자** : 수녀님은 지도자가 아니신가요?

**앤 수녀** : 아닙니다. 제 위에도 수녀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저는 그 수녀님의 보조 수녀입니다.

**회견자** : 이곳 카트만두에는 몇 분의 수녀님이 계신가요?

**앤 수녀** : 제 윗분을 포함하여 일곱 명입니다.

**회견자** : 그렇다면 수녀님의 주 사역지가 이곳 파슈파티사원 지역이겠군요?

**앤 수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우리 중 두 명의 수녀가 아침저녁으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처하는 두 채의 집에 모두 13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마을 안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곳에 갔다가 저녁에 이곳에 돌아옵니다.

**회견자** : 캘커타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앤 수녀** : 예, 물론입니다. 3년간은 캘커타에서 일해야 합니다. 6개월 간은 자원하고 1, 2년은 수련 기간입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회견자** : 수녀님은 어떻게 해서 카톨릭교인이 되셨는지요?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셨나요?

**앤 수녀** :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증조부님은 힌두교의 브라만이었지만 그 후에 개종하셨지요. 예수회 신부들을 통해 개종하셨답니다.

**회견자** : 그렇다면 수녀님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죠?

**앤 수녀** : 저의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 때 이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 증조부님께서 개종하시자 조부님이 개종하셨고 그 후에 저의 집안은 대대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회견자** : 이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미사에 참석하시나요?

**앤 수녀** : 물론이죠. 매일같이 저희 수녀원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회견자** : 누가 인도합니까?

**앤 수녀** : 자왈라크헬에서 오신 신부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예수회 사제들이 운영하는 제일 큰 카톨릭 학교가 있어요. 매주 각기 다른 신부님께서 오신답니다. 모두 미국인 예수회 신부님들이지요. 매일같이 우리는 미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30분은 묵상, 30분은 미사, 도합 1시간이지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는 1시간 동안 성체(미사 중 봉헌된 성병 즉 빵 조각)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점심을 먹기 전에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다음 점심을 먹으며 그리고 나서 30분간 영적 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인 서적들을 읽음으로써 힘을 얻고 그 후에 우리의 일을 시작합니다.

**회견자** :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에서 죽고 그 뒤 다른 사람들이 시체

를 불태우더군요. 수녀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앤 수녀 :** 우리는 우리의 종교에 관하여 어떤 것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바그완 — 힌두교 개념으로 우상들 배후에 있는 신들을 의미함 — 을 만나게 될 것이므로 스스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바그완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여러분의 죄로 그를 진노케 한다면 그와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선생님도 알다시피 이것은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고해 성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회견자 :** 그들 자신의 신들에게 말인가요?

**앤 수녀 :**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그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회견자 :** 수녀님은 그들이 힌두교의 시바나 람신(神)을 믿다가 죽었을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앤 수녀 :** 그렇고 말고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지요. 나 자신의 믿음이 나를 나의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의 신을 아주 확고하게 믿었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견자 :** 수녀님은 천국이 여러 곳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을 위한 천국이 있고 우리를 위한 천국이 또 따로 있나요?

**앤 수녀 :** 그렇진 않아요. 천국은 하나밖에 없죠.

**회견자 :**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앤 수녀 :**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인간 사회가 그들을 포기해 버렸고 그들은 거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회견자 :** 최근에 우리는 카톨릭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앤 수녀** : 어떤 변화 말인가요?

**회견자** :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으시나요?

**앤 수녀** : 물론입니다.

**회견자** : 교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앤 수녀** :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회견자** : 미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앤 수녀** : 갈보리에서 한 번 바쳐진 그 희생이 제단에서 매일의 미사를 통해 새롭게 됩니다. 그것은 '피 없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피 있는 희생이었고 오늘날의 미사는 피 없는 희생입니다.

**회견자** : 그렇다면 매일의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다시 바치는 그런 희생인가요?

**앤 수녀** : 그렇습니다. 다시 바치는 것이지요.

**회견자** : 그리고 오직 사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앤 수녀** : 예,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견자** : 그런데 오늘날에는 카톨릭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었던데요.

**앤 수녀** : 우리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으로 그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표시로써 개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종교는 영원히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개종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개종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개종하려 합니다. 이처럼 지고하신 우리의 성모께서는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지 않을 만큼 멋진 분이십니다.

**회견자** : 그렇다면 어쨌든 수녀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

하지 않으시는군요?

**앤 수녀** : 그럼요.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기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든지 간에 일단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회견자** :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앤 수녀** : 누가 잃어버린 영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가령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매우 추잡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회견자** :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앤 수녀** : 물론 있고 말고요.

**회견자** : 연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앤 수녀** :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회견자** : 가령 수녀님 자신이 죽게 된다면 수녀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나리라고 믿습니까?

**앤 수녀** :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며칠 간은 연옥에 있게 되겠지요. 우리도 역시 나름대로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녀들이고 경건하며 외적으로는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죄가 있지요.

**회견자** : 바로 그것이 연옥이 존재하는 이유인가요?

**앤 수녀** : 그 때문에 연옥이 존재합니다.

**회견자** : 수녀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십니까?

**앤 수녀** : 물론이죠.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회견자** : 성인들에게도 기도하십니까?

**앤 수녀** : 우리에게는 신뢰하는 여러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수호성인은 성(聖) 앤 (Saint Ann)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모친이시지요. 따라서 저는 일을 할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제 수호성인에게 기도합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테레사 수녀와 그녀의 동

역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믿음은 혼합된 것입니다. 즉 ‘믿음 더하기 행위’ 혹은 ‘율법 더하기 은혜’라는 저주받을 카톨릭 복음입니다. 진정 테레사 수녀와 그녀의 동역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 드리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카톨릭교회의 미사에 것처럼 매일같이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카톨릭교회의 미사가 공공연히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앤 수녀가 미사를 ‘피 없는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카톨릭교회 및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테레사 수녀와 그녀의 동역자 같은 카톨릭교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네팔의 가장 성스러운 강독 근처에서 앤 수녀에게 이 복스러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펼쳐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성취하신 ‘단번 속죄’ 즉 영단번(永單番)의 희생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카톨릭교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교인들의 교리적인 실수를 무시한 채 마치 그들도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들과 제휴하는 자들은 사실상 그들로 하여금 끔찍하고 영원한 파멸을 맞게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목하여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는 물론 그녀의 동역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 9:11-14)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배송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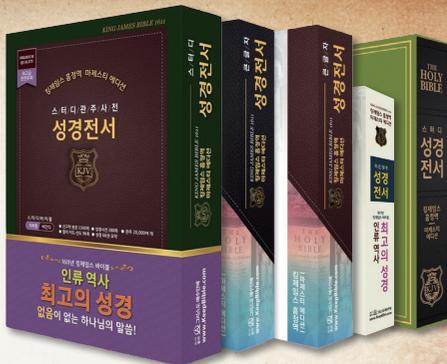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뵘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